

광 고

원양산업

제 1122 호

(2020년 6월 15일 발간)

창간 : 1972년 8월 1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라-9183호 / 월간발행 (비매품)

Contents



협회소식

- 원협, NGO 원양어선 불법어업·인권 침해 주장 반박 / 4
- 원협, 원양산업 중견기업 모여 코로나 대책 등 논의 / 6
- 2020년도 제1차 노사단체교섭협의회 개최 / 6
- 셀레늄, '코로나19' 상관관계 연구 활용, 참치 이슈화 / 7
- 코로나19, 참치 홍보 이어, 영양 성분 홍보 / 8
- 코로나19에 발 묶였던 원양어선원, 순차 귀국 / 9

■ 협회 5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 10

■ 오징어 요리 만들기 / 16

(오징어 카레해물덮밥)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

■ '20년 5월 보고 내용 / 17



해외수산물정보

- ### ■ 참치어업 동향
- 각종 악재로 황다랑어 어가 하락 / 23
 - 냉동 눈다랑어, 대만 600엔 붐기 / 24

- 일본 게센누마 가다랑어 중형 지난해 절반 수준 예상 / 24
- 냉동 가다랑어 시세 둔화 / 25
- 방콕 가다랑어 어가, 2019년 추세 따라가 / 25
- 냉동 가다랑어 브라인 동결품(B) 시세 하락세 / 26
- 돛토리 사카이미나토에서 선망 참치 첫 위판 / 26
- 도요스 시장 신선 가다랑어 전년비 70% 감소 / 27
- 참치 어체 측정 자동화, 효율적으로 급이 / 27
- MSC 가다랑어, 참치 급증 / 28
- 일본 신선 날개다랑어 풍어, 지난해 3배 넘는 9,800톤 / 28
- 일본 닛카츠어협 코로나로 인해 생존 위기 / 29
- 일본 참치 양식 업체 카리참치, 식품 안전의 국제 인증 / 29
- 일본, 태평양 참다랑어 대만 이양분 배분 결정 / 30
- 일본 참다랑어 조업 승인 내년 봄까지 연장 / 31

■ 오징어어업 동향

- 하코다테 오징어도 코로나로 인해 타격 / 32
- 남미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어체 소형화, 1kg 이하도 나와 / 33
- 포클랜드,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 평균 이상 보고 / 33
- 日 살오징어 3월 어획, 2.6배인 1,200톤 / 34
- 일본 살오징어 4월 어획 60% 증가한 485톤 / 34
- 일본 선동 빨강오징어, 하절기 조업에 32척 조업 시작 / 35
- 신선 살오징어 가나자와 어획 급성장 / 35

Contents

■ 명태어업 동향

- 미국, 코로나19로 명태, 대구 자원조사 취소 / 36
- 미국 스케코(명란) 입찰, 고가 825엔 / 36

■ 꽁치어업 동향

- 일본, 꽁치 흥어 계속으로 소비자 이탈 우려 / 37
- 꽁치 어획량, 13만 6,000톤 권고 / 37
- 일본 공해 꽁치 조업 시기 불투명 / 38

■ 일본 수산 동향

- 일본 주요 68개 어항 위판량, 1~4월 12% 감소한 56만톤 / 39
- 2020년 4월 가계 어육 연제품 지출 6% 증가한 681엔 / 39
- 일본 4월 냉동 어육 생산 21% 증가한 951톤 / 40
- 어식 당뇨병 망막증 예방 가능성 / 40
- 일본 대학 및 수산관련 기관, 수산업에 대한
코로나 영향 조사 / 41
- 일본 2020년 4월 가계 해산물 지출액 7% 증가 / 41
- 일본 2019년 어업·양식업 생산 최소 416만톤 / 42
- 일본 무선 공간 절약형 디자인의 중소형 선박용
레이더 출시 / 42
- 스미토모, 미국 배양 어육 제조 스타트업 회사에 출자 / 43
- 일본 4월 해산물 수입, 20% 감소한 1,300억 엔 / 43
- 일본 고등어 양식에 ICT 활용, 사바나와 도코모가
업무 제휴 / 44
- 일본, 4월 대 중국 식품 수출 4개월만 증가 / 45
- 日 슈퍼마켓 협회, 4월 냉동 생산 등 판매 성장 / 45

■ 각국 수산 동향

- 러시아, 남극 크릴 어업 확장 검토 / 46
- 블록체인, 수산식품 가치 사슬 효율성 개선 가능성 / 47
-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 선원 23,500명 모라토리엄 검토 / 48
- 노르웨이 양식 연어 생산세 도입 / 49
- 러시아 극동 수산물 운송에 북극해 항로 이용 계획 / 49
- 남대서양 RFMO 설립에 힘 모아 / 50
- 모리타니아 냉동 문어 對日 1,000 달러 가격 인하 / 50

■ 쉬어가는 난 (詩)

- 바다 <김기린> / 51

■ 국내 수산 뉴스

- 원양어선 국제읍서버의 모든 것, 한 곳에서 본다 / 52
- 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처우 개선 / 53
- 수산물 즉석 간편식으로 해외시장 개척 / 54
- 문성혁 해수부 장관, 장기승선 선원들에 감사 서한 보내 / 54
- 해양수산 창업의 기회,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 55
- 해수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 지원 / 55
- 코로나 피해 수산업계 및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추경 편성 / 56
-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 56

원협, NGO 원양어선 불법어업·인권 침해 주장 반박 불법어업 사실 없고, 인권 침해도 왜곡된 주장 한국 원양어선과 무관한 제3국적선원도 일부 조사 대상에 포함

우리 협회는 11일 환경정의재단이 외국인 어선원 54명을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NGO들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어업과 인권 침해 주장은 대부분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협회는 NGO 단체가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극소수 외국인 선원과 특정 업종에 치우친 조사 표본만을 근거로 인신매매, 현대판 노예 등 자극적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 원양어업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원양어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NGO 측이 한국 원양어선과 무관한 외국인 선원(제3국적선 등)까지 일부 인터뷰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실제 승선 여부, 승선 시점, 구체적 사항 발생 시점(연도) 등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원 진술에만 의존하여 객관성이 결여된 주장을 폈다고 밝혔다. 또 한국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비거주 외국인 선원을 국내 거주하는 이주 어선원인양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어선은 그 특성상 육상에 비해 근무 환경이 열악할 수 있으나 한국 원양어선에 대한 재승선율은 최소 60~80%에 달하며 근속 연수 5년 이상 재승선자도 1,500명 이상이라고 밝히며, 극소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만을 바탕으로 외국인 선원 근로 환경이 매우 나쁜 양 왜곡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특히 조사 대상 응답자의 33%가 한국 원양어선이 불법조업을 감행했다는 NGO 주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기구(WCPFC,

SPRFMO), 연안국 등이 선박위치추적시스템(VMS)을 통해 연중 24시간 다중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고의적으로 연안국 EEZ를 침범해 무허가 불법조업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는 주장은 전혀 현실성이 없으며 관련 원양선사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NGO측의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국격이 훼손되고 IUU어업국으로 부당하게 낙인찍히게 되지 않을지 향후 파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주요 항목별 반박 내용

불법조업 주장 현실성 없어

NGO 측이 연안국 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것으로 발표한 원양어선 중에는 해당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인 조업을 한 경우까지 들어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주장이다.

NGO 측은 선박위치추적 정보 송신 인터벌 시간(4시간) 동안 EEZ를 침범하여 불법조업을 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선박위치추적은 정보 송신 인터벌과 상관없이 사후라도 즉시 파악 가능하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특히 한국 조업감시센터(FMC)에서는 1시간 단위로 위치를 추적하고 있고, 1시간 내 조업을 종료할 수 있는 업종은 없는 실정이다. 외국인 선원들은 하급선원들로 바다에 경계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EEZ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으며 이를 확인할 수도 없다.

따라서 NGO측의 주장은 우리 정부 및 국제기구, 연안국의 불법조업 감시시스템을 아무런 근거 없이 선원들의 부정확한 진술만으로 부정하고 폄하하는 억측일 뿐이다.

최저 임금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외국인 선원들의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인 선원은 우리나라 생계비(주거비 물가수준 등) 산출로 최저 임금을 산정하지만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선원은 이주 어선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최저 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는 비 거주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국제항해를 하는 선박 성격상 ITF(국제운수노동조합연합회), ILO(국제노동기구)에서 선원 직책별로 정하고 있는 Basic pay를 적용,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최저 임금을 정한다. 현재 한국 원양선사는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을 승선 경력과 책임성에 따라 동 최저 임금 이상의 수준(36개월 초과 경력자 월 625 달러, 36개월 이하 초급선원 465 달러 이상)을 지급하고 있으며 실질 지급액은 제반 수당을 포함하여 이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는 최저 임금의 차별이 아니라 우리나라 거주와 비 거주에 따른 차등일 뿐이다. 특히 한국선원은 주로 사관이며, 외국인선원은 부원으로 이는 근로의 전문성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일본 및 대만, 영국 등도 외국인 선원에 대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들의 임금 수준은 해당 국가의 소득 수준과 물가 등을 감안해야 하며 현재 해당 국가 평균 임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높은 수준이다.

과도한 노동 시간 주장에 대한 해명

어업 특성상 일시적 성어기를 제외하고는 어업별 시스템에 따라 근무를 하며, 항해, 어탐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나 인종에 상관없

이 어업 특성에 따른 일반적 현상으로 매일 같이 장시간 노동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군이 물리는 시기에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일일 뿐이다.

송출 비용 공제 등은 원양선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안, 제도적 개선 필요

송출 비용 부과나 송금 수수료 월급 공제 등은 현지 송출회사와의 문제이며 원양선사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다만 인력중개업자나 송출 회사로부터 외국인선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선원 고용 체계를 정부가 개선하는 데는 원양선사들도 적극 관심을 갖고 협조토록 할 방침이다.

여권 압수, 언어적 물리적 확대 주장에 대한 해명

여권은 선내에서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분실 방지 및 관리를 위해 한국인 선원 및 외국인 선원의 여권을 브릿지에 일괄 보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일시 하선할 경우에도 여권 분실이나 불법 체류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보관하는 것일 뿐 인권 침해와는 무관하다. 한국인들이 해외 단체 여행을 하게 되면 관광가이드가 여권 분실이나 사고 예방 차원에서 여권을 가이드에게 보관시키도록 하는 것과 같은 차원이다. 외국인 선원들의 입장에서는 여권 보관을 압류로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향후 여권을 보관시키는 이유 등을 선장이 잘 설명토록 하여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

원양선사는 선내 학대 및 폭력 행사시 엄중 징계(하선조치)하며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내외국인 선원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각국 언어로 된 외국인 선원 선상생활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인권침해 관련 선사 설명회 등도 실시하고 있다.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시 NGO에서 해당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 개선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원협, 원양산업 중견기업 모여 코로나 대책 등 논의 준법조업, 원양수산물 소비촉진 등 의견 나눠



동원산업, 사조산업, 신라교역 등 중견 원양선사 대표들이 지난 18일 한국원양산업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코로나19 등 최근 원양어업을 둘러싼 이슈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이날 모임에는 한국원양산업협회 윤명길 회장을 비롯해 동원산업 이명우 대표이사, 사조산업 이창

주 대표이사, 신라 이광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아울러 각사 수산본부장들이 배석했다.

중견 원양선사들은 이 자리에서 최근 주요 이슈인 안전조업 방안 등을 논의하고, 특히 준법조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원양선사들은 지속적인 원양어업을 위한 선박안전과 국제협약 비준을 대비한 준비 현황에 대해서도 서로간의 입장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특히, 소비 침체 및 수출 위축, 어가 하락 등 코로나 사태를 둘러싼 최근의 현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원양수산물 소비촉진 등 원양어업 전반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협회 및 중견 원양선사 대표들은 향후 이같은 모임을 확대하여 주기적으로 모이기로 하는 등 정례화 하기로 했다.

2020년도 제1차 노사단체교섭협의회 개최

2020년도 임금교섭 부의안 의견 교환 등



2020년도 제1차 노사단체교섭협의회가 지난 6월 10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협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사측 대표로 박길

주 위원장을 비롯, 사측교섭위원 7명이, 노측 대표로 염경두 위원장과 노측교섭위원 8명이 각각 참석했으며, 협회에서는 이동욱 경영지원본부장과 이성재 회원지원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0년 단체교섭위원 현황과 COVID-19 감염증 대응 관련 노사정 영상회의 개최, 2020년 임금교섭 관련 업무 추진, NGO, 「원양어업 실태조사 보고서」 관련 노사업무 협의 등이 보고되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와 함께 2020년도 임금 교섭 부의안에 대해 노사 양측 입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셀레늄, ‘코로나19’ 상관관계 연구 활용, 참치 이슈화

다음 메인페이지 올라 댓글 385개, 20개 매체에서 소개

우리 협회는 최근 참치를 비롯한 어류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필수 미량 물질인 셀레늄의 체내 수치와 ‘코로나19’의 치유율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언론에 소개했다.

협회는 영국 서리(Surrey)대학 식품공학과와 마가렛 P. 레이먼 교수 연구팀이 학술저널 ‘미국 임상영양학誌’(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지난 4월 28일 게재한 보고서를 입수 분석해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언론에 보도자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 지역별 셀레늄 수치와 보고된 ‘코로나19’ 치료결과의 상관관계’라는 제목으로 중국에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체내의 셀레늄 수치와 ‘코로나19’ 치유율 또는 사망률 사이에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는 것이다.

레이먼 교수 연구팀은 중국 내 200여 성(省)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보한 40여건의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했으며 그 결과 셀레늄 수치가 높은 지역들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에서 회복된 환자들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 주목하게 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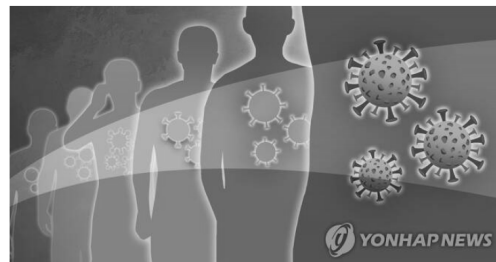
예를 들면 중국에서 셀레늄 섭취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진 후베이성(湖北省)의 소도시 언스(恩施)

연말뉴스

"참치 등에 있는 셀레늄 체내 수치 코로나 치유율과 상관관계"

자근호 입력 2020.05.27. 15:05 댓글 385개

한국원양산업협회, 영국 서리 대학 연구팀 보고서 소개
셀레늄 섭취율 높은 후베이성 환자 치유율 다른 도시보다 3배 높아
중국에서 셀레늄 섭취 가장 낮은 헤이룽장성 사망률 5배 가량 높아



施)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의 치유율(36.4%)이 같은 후베이성의 다른 전체 도시들의 평균치(13.1%)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셀레늄 섭취율이 중국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꼽히는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의 ‘코로나19’ 사망률(2.4%)을 보면 후베이성 이외 다른 여러 성들의 평균치(0.5%)에 비해 5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협회는 보도자료 말미에 『셀레늄 성분은 육류 살코기(0.1~0.4μg/g), 곡류(0.1~0.8μg/g 이하), 과일과 채소류(0.1μg/g 이하) 등에 비해 참치 등 해산물(0.4~1.5μg/g)에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참치(0.74μg/g), 참치통조림(0.78μg/g), 가다랑어 혈합육(1.91μg/g), 명태 알(0.68μg/g) 등에서 셀레늄 수치가 높다』고 알렸다.

협회 보도자료를 인용한 연합뉴스 기사가 한때 다음 메인 페이지에 게시되며 댓글 385개가 달리기도 했다. 다음 1boon 뉴스에도 리얼푸드에서 실은 기사가 게시되어 6,060명이 뉴스를 읽었다. 이외에도 18개 매체에서 관련 소식을 다뤄 이슈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1boon

Q ≡

RealFoods

팬데믹 시기, 참치 많이 먹으면?

셀레늄 적절량 섭취 중요

6,060 읽음 · 2020.06.01

04 0



필수미량원소인 셀레늄은 항산화작용을 통해 면역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유율과의 상관관계를 입증한 연구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코로나19, 참치 홍보 이어, 영양 성분 홍보

“코로나19로 참치, 건강 식품으로서 가치 주목”



망막을 구성하는 인지질 성분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뇌를 구성하는 지방 성분의 10%를 구성하고 있어 섭취 시 태아 및 어린이 지능 형성에 도움이 된다.

△ 참치에는 엽산, 철분, 비타민12가 포함되어 있어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된다. 빈혈은 근력 저하, 시력 장애, 극심한 피로 등의 증상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불임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7일 「참치 등에 많은 셀레늄 수치 ‘코로나19’ 치유에 영향」 이어 6월 3일 「코로나19로 참치, 건강 식품으로서 가치 주목」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협회는 보도자료에 『코로나19 치료 및 병세 악화 방지에 황산화 물질인 셀레늄 성분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면서 건강식품으로서 참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며 영양 성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렸다.

△ 참치는 DHA와 EPA로 구성된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메가-3 섭취는 심장 건강 증진과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고 과다 섭취할 가능성이 많은 오메가-6와의 균형적인 섭취로 치매 진행속도 감소에도 도움을 주며 노화로 인한 근육 감소 방지 제지방 체중, 약력, 근육량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DHA는 뇌와

과 같은 합병증의 원인이 된다.

△ 셀레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셀레늄의 강력한 황산화 작용을 통해 몸의 해독 작용과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이 된다.

△ 참치오일 보충제(면실유)는 몸에 좋지 않다는 선입견이 있었으나 다른 종류의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고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참치 섭취나 참치오일 보충제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참치의 요리 종류, 어종, 보관, 식품 안전 등을 알려 섭취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배포한 보도자료는 리얼푸드에서 실은 기사가 다음 1boon 뉴스에 올라가며 조회수 7,856을 기록했다. 이외에도 4개 매체에서 관련 소식을 다뤘다.

코로나19에 발 묶였던 원양어선원, 순차 귀국 민·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전 세계적인 봉쇄조치로 발이 묶였던 남대서양 오징어채낚기 원양어선원 881명이 6월부터 8월까지 임시 항공편 등으로 귀국길에 오른다.

오징어채낚기 어선원은 1,065명으로 4월에 29명이 귀국했고 귀국예정은 881명이며 현지 체류하기로 결정한 인원은 155명이다.

이번에 귀국하는 881명의 어선원은 한국인 173명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인 585명, 베트남인 72명, 필리핀인 51명 등이다.

이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던 원양어선원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해수부와 외교부, 주우루과이 한국대사관, 우리 협회, 업계, 노조 등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결과이다.

현재 남대서양 연안 해역에서 오징어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원양어선은 총 30척으로, 원양산 오징어의 45%(14,460톤, '19년 기준)를 생산하고 있어, 국민 생선인 오징어의 안정적인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원양어선원들은 어기가 종료되는 5월부터 6월 사이 대부분 자국으로 귀국한다. 하지만 올해는 우루과이, 페루 등 남미 국가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요 공항과 항만이 폐쇄되어 귀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해양수산부와 우리 협회, 원양노조가 참여하는 노·사·정 협의회를 총 4차례 개최해 원양어선원의 귀국 방안을 논의하고 조기 귀국을 위한 노사간 합의를 도출했다.

또한 외교부는 주우루과이 한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원양어선이 몬테비데오항으로 입항할 수 있도록 우루과이 정부와 교섭했다. 당초 우루과이 해경측



에서는 안전사고·긴급한 선박 이동 필요성 등을 이유로 최소 인원을 선박에 당직요원으로 체류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외교부와 우리 오징어 조업 선사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를 철회시켰다. 아울러 아마존조나스 항공사(Amazzonas Uruguay)로부터 몬테비데오와 브라질 상파울루 간 임시 항공편을 확보함으로써 원양어선원이 귀국길에 오를 수 있었다.

이번에 항공편으로 귀국하는 원양어선원 416명은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현지시각 6월 4일 12시 20분에 한국인 18명을 포함한 80명이 첫 출발한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출발하며 카타르 도하공항 등을 경유하여 각국으로 귀국하게 된다.

나머지 원양어선원 465명은 조업선을 직접 타고 귀국길에 오른다. 인도네시아 선원 중 일부인 66명은 자국에 하선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내려준 뒤, 7월 중순경 부산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부산항으로 직접 입항하는 경우, 선박 수리와 어획물 운반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귀국 중에 외국인 어선원의 하선과 향후 출항 시 재승선이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선이 이동하는 동안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조업감시센터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협회 5월 주요 업무 추진 동향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 원양어업경영자금 관련 업무 추진
 - 가. '20.5월 원양어업경영자금 운영위원회 개최
 - 일자/장소 : '20.5.13 / 협회
 - 참석자 : 운영위원회 위원(6인)
 - 내용 : 7개사 27척 434.14억원 원안의결
 - 나.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 관련 의무서류 제출 독려 (전화원사)
 - 사업계획서, 어업허가증, 전년 결산서(연1회) 요청
- 3개 기관 합동 청렴시민 감사관(옴부즈만) 회의 참석
 - 일자/장소 : '20.5.29, 14:00 / 환경부 회의실(564호)
 - 참석자 : 해외협력본부장
 - 내용 : 반부패·청렴관련 부처 현안사항 논의 등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창립 제39주년 기념 포상협찬
 - 일자/장소 : '20.5.24 / 해양소년단 각 지방연맹별 기념식장
 - 협회장 표창장 및 부상 협찬 전수조치(10명)
- 청해부대(대조영함) 파병에 따른 위문품 증정
 - 선풍기, 냉장고 등 증정
 - * 오만만, 아라비아(페르시아만)일대 국민보호 임무(파병기간 : 2020.5월-11월/약 6개월간)
- 회원사 대표이사 변경사항 안내(전화원사)
 - 사조산업(주) : 김정수 ⇒ 이창주
 - 사조씨푸드(주) : 최창욱 ⇒ 최세환
- 수산물 유통수급 TF 관련 업무추진(해수부)

- 코로나19 관련 해수부 수산정책과에 원양수산물 양륙량 관련 통계 주간단위 제출(9차)
- '20. 협회비 부과 추진
 - 3, 4월분 업종별회비 부과
- 2020년도 협회 회원수첩 제작배포 추진
 - 600부 배포 완료
- '20.4월 원양어획물 생산실적 분석

구 분	생산량(M/T)	전년비(%)
합 계	140,624	86
- 참 치	88,661	75
· 횡감용	12,487	101
· 통조림용	76,173	72
- 명 태	0	-
- 오징어	24,912	181
- 콩 치	0	-
- 기 타	27,052	85

회원지원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업무 추진
 - 가. 코로나19 대응 노·사·정 영상회의(4차)
 - 일시/장소 : '20.5.15, 14:00 / 협회 소회의실
 - 참석자 :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원양노조 위원장, 협회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오징어채낚기 어선 선원 송환 관련 등 협의
 - 나. 보건용, 의료용 마스크 6월중 국외반출 계획 수요 조사 및 회신(해수부/5.15)
 - 6개사 33척 6,680장

다. 마스크 공적물량 특별 유상공급 안내 및 구매수요 조사 및 회신(해수부/5.15)

- 5개사 5,900장

라. 외국인선원 승객입국 허용요청(해수부/5.28)

마. 외국인선원 입국일정 등 동향 업데이트

바. 회원사 안내

- 검역 대응지침 개정 안내(전회원사/5.19)
 - 승객 중 본국 귀환목적으로 하선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지자체 시설격리 후 진단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시설격리 중 출국 가능

-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절차 안내(전회원사/5.21)

- 단기체류외국인 입국 시 14일 시설격리, 퇴소 전 진단검사

- 국제공인 예방접종 지정기관 안내 및 이관 알림 (전회원사/5.12)

- 영도병원 추가 지정

○ 노사 관련업무 추진

가. 노사양위원회 간담회

- 일시/장소 : '20.5.12, 12:00 / 부산

- 참석자 : 노사위원장, 노조위원장 등 / 경영지원 본부장, 회원지원부장

- 내용 : 2020년 임금교섭 등 노사현안사항 협의

나. 제1차 노사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5.26, 14:30 / 협회

- 참석자 : 사측위원장 및 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회원지원부

- 내용 : 2020년 임금교섭 등 현안사항 협의

다. 제1차 노사위원회 결과알림 및 자료요청(노사 위원사/5.27)

○ '20년 제1회 선원인권침해 예방 네트워크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5.25, 15:00-17:00 / 선주협회

- 참석자 : 해수부, 학계, 선원 및 선주단체 / 회원지원부 차장

- 내용 : 20년도 기관별 인권침해예방 계획 공유 및 실적공유 등

○ 제430차 선급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 '20.5.28, 17:00 / 해운빌딩

- 참석자 : 선급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4.20~5.24 선박 심의 등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수정에 따른 의견조회(전회원사/5.8)

- 정보공개 대상에 불법 비보고 비규제 선박 정보 수정 추가

○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관련 선박 취명 협조 요청 (전회원사/5.27)

- 부산항에 정박한 모든 선박 6.6일 10시부터 1분간 동시 취명

○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제1차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0.5.20, 15:00 / 수협중앙회

- 참석자 : 선급위원 / 경영지원본부장

- 내용 : 2019년도 결산보고서(안) 검토 등

○ 선박연료유 규제 정책현장 설명회 참석

- 일시/장소 : '20.5.20, 14:00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 참석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외, 선급, 선주협회, 원양 및 상선업체 등 / 회원지원부 과장

- 내용 : 연료유 황함유량 규제현황 및 계획 공유

* 상기 회의 결과 전회원사 공람(5.22)

○ 2020년도 승선근무예비역 편입현황 제출 (해수부/5.22)

- '20년 배정인원 55명 중 18명 편입

○ 원양어업허가 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알림(전회원사/5.15)

- 원양채낚기어업·원양통발어업 : 국제수산기구의 자원보존관리조치나 어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태평양수역에 허가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어선별 인터넷 가능여부 및 통신비용 조사 (전회원사/5.7)

- 선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선박 정보

○ 제35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개최 관련 의견회신 (중심원/5.7)

- 세미나 개최여부를 금년 8월경에 최종 결정 요망
- 선박안전관련 업무 추진
 - 해양안전·사고정보 전파체계 운영현황 및 계획 회신(해수부/5.4)
 - 해양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당부(전회원사/5.6)
 -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 알림 (전회원사/5.28)
- 해적관련 업무추진
 - 서아프리카 위협예비해역 통항 시 해적경계활동 강화(전회원사/5.4)
 - 2020년 5월 청해부대 선박 호송계획 변경알림 (전회원사/5.11)
 - 서아프리카 위협예비해역 통항 시 해적경계활동 강화 요청(전회원사/5.11)
 - 해적 출몰해역 통항시 해적피해예방활동 강화 요청(전회원사/5.26)
 - 6월 청해부대 선박 호송계획 및 청해부대 연락처 변경 알림(전회원사/5.28)
 - 해양수산부 허가 해상특수경비업체 현황 송부 (전회원사/5.28)

홍보 · 마케팅지원센터

- 원양산업지 45월호(1121호) 제작
 - 협회소식 2건(코로나19로 원양어업 제약 속 정부 신속 대응, 업계 감동 등)
 - 국내소식 11건, 해외수산정보 50건
 - 명예해양수산물관 보고사항, 협회 업무 동향 등 정리
 - 교정 및 편집 의뢰, 인쇄 및 발송(125개소 324권)
- 원양산업 정보&뉴스 제공(55호 5.13, 56호 5.20, 57호 5.27/ 회원사 임직원 카카오톡 및 이메일 송부, 홈페이지 게시)
 - 제55호 정보 18건(AI 판정 참치 수출, 日 수산청 수출 확대 사업 채택/ 연승-통발-트룰 다목적

- 어선 실제 드러내/ 스페인 정부, 세이셸 참치어선 선원 교대 추진 등)
- 제56호 정보 13건(동부태평양 1분기 어획량, 기록적인 수치/ 참치, 방어 혈합육 셀레늄 성분, 코로나 치료 효과/ GAPP 명태 시장 확장 등)
- 제57호 정보 14건(가다랑어 시세 둔화/ 러시아 극동 수산물 운송에 북극해 항로 이용 계획/ 일본 공해 쫓겨 조업 시기 불투명 등)
- 각 호 조업 동향, 유가정보 취합
- 보도자료 작성, 홍보
 - 가. 「코로나19로 원양어업 제약 속 정부 신속 대응, 업계 감동」 보도자료 배포('20.5.13, 일간지 및 방송, 수산전문지)
 - (지면) 수산인신문(5.18) 1면, 수산신문(5.18) 1·4·5면, 한국수산신문(5.18) 5면, 어민신문(5.18) 5면 게재
 - (인터넷) 부산일보(5.13), 매일경제(5.14) 게재
 - 나. 「원협, 원양산업 중견기업 모여 코로나 대책 등 논의」 보도자료 배포('20.5.20, 수산전문지)
 - 수산신문(5.25) 2면, 수산인신문(5.25) 3면, 한국수산신문(5.25) 4면, 어민신문(5.25) 5면, 게재
 - 다. 「참치 등에 많은 셀레늄 수치 '코로나19' 치유에 영향」 보도자료 배포('20.5.27, 일간지 및 방송, 수산전문지)
 - (지면) 수산신문(6.1) 2면, 한국수산신문(6.1) 4면, 한국수산경제(6.1) 8면 게재
 - (인터넷) 연합뉴스, 부산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뉴스1, 중도일보(5.27) 등 16개 언론사 게재
- 수산전문지 기고
 - 해외협력본부장 기고 「원양어업, 국가식량 안보 산업으로 육성·관리를」 게재(어민신문 5.11, 12면)
- 2020년 제18회 부산국제수산 EXPO 참가 안내
 - EXPO 개최 일정('20.11.4~6/ 부산 BEXCO 제1 전시장) 및 회원사 할인(30~40%) 안내
- 농수축산신문사 39주년 기념 축사 작성, 송부(5.15)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 제2차 참치선망어업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5.15, 15:00 / 협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참치선망어업위원장 등 선망 출어사 / 해외협력 1부
 - 내용 : 키리바시 입어조건 등 협상방안 협의
- 코로나19 관련 지원사항
 - 가. WCPFC 연승선 해상전재 읍서버 한시면제 안내
 - (적용기간) 5월 31까지
 - (주요내용) 현재 승선중인 읍서버 하선 이후 새로운 항차부터 참치연승 해상전재 읍서버 면제
 - 나. WCPFC 코로나19에 따른 대응조치 연장 안내
 - (연장기간) '20.5.31(기준) → '20.7.31(연장)
 - (대응조치) 선망선 읍서버 커버리지 의무 잠정 유예, 선망선 해상전재 허용, 연승선 해상전재 시 운반선 읍서버 승선 면제
 - 국제수산기구(RFMO) 보존조치 이행 지원
 - 가. 국제수산기구별 선박(변경)등록 조치(계속)
 - 나. IUU어업 예방을 위한 연안국 좌표 업데이트 등 지도관리 강화 요청(전 회원사)
 - 다. 2020년도 지역수산기구 어획할당량 배정 및 배정 방법 안내
 - 라. WCPFC 수역 UN 공표 EEZ 좌표 안내
 - 마. WCPFC 및 IATTC 수역 쿼터 소진실적 확인 (1-4월)
 - 바. 2020년 지역수산기구 어획할당량 소진 및 전배 현황 보고(해수부)
 - 사. CCSBT 남방참다랑어 4월 어획실적 및 6월 양륙 계획 통보(해수부)
 - 아. 2020년도 지역수산기구 어획할당량 배정내역 정정 안내(ICCAT 녹새치)

- 참치어업 지원사항
 - 가. 참치선망 조업일수 소진현황 공람
 - 나. 2020/2021어기 키리바시 수역 입어신청서 제출 요청
 - 다. PNG 조업일수 추가 구매
 - 라. 2020/2021어기 FFA 증서 발급 지원
 - 마. 투발루 전채세 조정시행 통지 건 관련 전채세 인하 요청
 - * \$7/톤 → \$4/톤
 - 바. PNG 항만개발 협력사업 관련 현황 자료 제공 (항만협회)
 - 사. 2020/2021어기 키리바시 입어협상 자료 조사 (어획량, 입항횟수, 전채 실적 등)
 - 남서대서양오징어어업 지원 추진
 - 가. 2020어기 포클랜드 채낚기 지원사항
 - 포클랜드 입어종료 후 선원 하선계획 재조사 결과 통보(해수부)
 - 우루과이 체항 시 위급 상황에서 운항 가능한 안전최소선원확인서 철회 안내
 - 5월 선박 훈련 보고서 제출(선박 → 협회 주재원 → 대방사)
 - 포클랜드 입어종료 후 선원 하선계획 재조사 결과 통보(해수부)
 - * 부산 입항 : 9개사 12척, 몬테비데오 체항 : 10개사 18척
 - 포클랜드 제도 PSC(항만국통제검사) 관련 동향 및 오징어채낚기 허가할당제도 관련 수산청장 의견 안내
 - SPRFMO에서 요구하는 VMS 자동위치발신기(ALC) 최소기준 안내
 - 조작방지 봉인 및 조작 시 FMC로 알람 기능 보유한 ALC 설치
 - 나. 포클랜드 조업동향
 - (조업) 오징어채낚기 2척, 트롤 7척 공해 조업
 - (어획량) 일일 채낚기 척당 평균 약 0.5톤 미만, 트롤 15톤/척

해외협력 2부

- 대러시아 업무추진
 - 가. 북양트롤 및 대구저연승 업무추진
 - 러수역 입어로 납부 및 납부내용 알림 (5.26 / 러, 수산청, 주러한국대사관)
 - 나. 콩치붕수망 업무추진
 - 해상용전자저울 러문 인증서 제출 알림 (5.7 / 콩치위원장)
 - 러수역 콩치붕수망업종 쿼터 및 입어로 재배정 알림(5.11 / 콩치위원장)
 - 통역관 승선조치를 위해 경비정 및 순찰선 활용 불가 알림(5.12 / 사할린국경수비대)
 - 러수역 모니터링 장비 등록 업무 추진 (5.20 / 러시아모니터링센터)
 - * 8개사 9척 등록 및 증명서 발급
 - 통역관 육상근무 협조 요청(5.22 / 사할린국경수비대)
- 2020년도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60,760천원)
-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콩치붕수망어업 업무 협의회 결과 알림(5.14 / 콩치위원장)
 - 수과원 측에서 어획량 및 어종크기 보고, 폐기 금지 등 NPFC의 보존조치 숙지 및 이행 당부
 - 콩치 사이즈 보고 누락은 FMC와 수과원 데이터 연동 오류로 확인하고 문제 수정함

부산지부

- 공인차량계량소 업무추진
 - 총 69개사 517건('20.5.1-5.31)
- 부산권 냉동창고 근로자 산재보험관리기구 및 복지위원회(연금+건강보험) 이사회 참석
 - 일시/장소 : '20.6.3, 11:00/ 원양프라자 3층, 4층
 - 참석자 : 냉동창고 화주 및 노조 등 11명 (부산지부장)
 - 내용 : '20.5월 산재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20.5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 확정 신고

- 원양어선 입출항현황 조사보고(부산항만청)
- 각종 확인 업무
 - 원양어업용선수품 무환반출 확인업무
 - 원양어획물 양륙신고 확인업무
 - 수출확인업무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 제125차 OECD 수산위원회 참석
 - 일시/장소: '20.5.5~6/ 화상회의
 - 참석자: 해수부 어업정책과 조일환 과장, 국제협력총괄과 이근호 사무관, 협력센터 원태훈 전문관
 - 내용: 2021-22 업무예산프로그램(PWB) 승인 및 코로나의 수산양식 부문에 대한 영향 및 대응정책 논의
- 전문가 초청 세미나
 - 일시/장소: '20.5.25 15:30/ 협력센터 회의실
 - 참석자: 동해어업관리단 이태히 선장, 원양협회 김효상 과장 등 3인, 협력센터 권현욱 센터장 등 9인
 - 내용: 주요 어구어법 및 MCS(감시·감독·통제) 수단
- RFMO 보존관리조치 번역
 -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CMM 번역
 -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책자 발간
 - 인도양다랑어위원회(IOTC) CMM 번역 및 편집
 - 전미열대다랑어보존위원회(IATTC) CMM 번역
- FAO 업무
 - FAO hand-in-hand 이니셔티브 의제분석
 - 제3차 세계수산대학 운영위원회 준비
 - 제163차 FAO 이사회 의제분석
- 일본 해양수산 주요 이슈 분석 및 조사
 - 가. 독도관련 일본 정부 동향 자료 송부
 - (해양영토과) 외교청서 요지/목차 내용 번역
 - 나. 방사능 처리수 관련 동향 파악/정리

- (해양환경정책과) 해양방출안 관련 동향 자료 송부
<해외진출지원팀>

○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운영

- 원양산업뉴스 17건 업로드
- 업데이트 대상 국가(캄보디아, 사모아, 호주, 네델란드, 덴마크) 정보 수집
- 2분기 전문가 특별기고자(해양수산연수원 박태선 교수) 섭외(5.20)

○ 명예해양수산물 제도 운영

- 가. ofis에 명예해양수산물 보고서 등록 9건
- 나. 페루 명예해양수산물 추천위원회 개최(5.12~5.15)
 - 추천위원회 결과보고 제출 및 페루 이호상 명예 해양수산물 추천(5.18, 국제협력총괄과)

○ 연안 개도국 수산인프라지원사업 관련 업무추진

- 가. 주한 가나 대사관 방문 출장
 - 일시/장소 : '20.5.7, 15:00/ 서울 가나 대사관
 - 참석자 : Mr. Samuel Servo Councilor, 구안나 대사비서,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지원물자 통관 협조요청 및 20년 바이오 플라크 킬라피아 양식 사업 관련 공식수원 요청서 작성 협조 요청

- 나. 가나 20년 사업 예정지 현황 조사실시(5.14)
 - 바이오플라크 기술 전문가 자문 내용 가나에 전달 후 회신 수신

- 다. 키리바시 '20년 사업(어시장 건설) 추진계획 전달 (5.26)
 - 키리바시 수산부 차관(Dr. Agnes)에게 '20년 어시장 건설사업 관련 공문 전달

- 라. 세네갈 수산부에 협조요청 공문 전송(5.20)
 - 어시장 지원물자('18년 컨테이너 2개, '19년 컨테이너 4개) 통관 및 '20년 사업지 선정 요청

- 마. ODA사업현황 보고(5.19)
 - 일시/장소 : '20.5.19, 10:00/ 해양수산부 국제 협력총괄과
 - 참석자 : 해양수산부 서정훈 과장, 전해진 사무관, 협력센터 서규혁 행정관

- 내용 : ODA사업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보고
- 바. ODA사업 시행기관 담당자 영상회의 참석
- 일시/장소 : '20.5.27, 16:00 / 영상회의
 - 참석자 : 해양수산부 ODA사업 담당자(5인)
 - 내용 : '20년 사업 진행현황 및 애로사항 보고

사. 주세네갈 한국 대사관에 협조요청 공문 전송 (5.22)

- 어시장 지원물자 통관 및 '20년 사업지 선정 관련 협조 요청

아. 해양수산 군소도서국 협력사업 현황자료 제출 (5.29)

- 군소도서국 협력사업 현황 관련 해수부 요청자료 작성

○ 원양산업 통계조사 사업 관련 업무추진

- 가. 2020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실시(4.20~5.14)
 - 원양어업 통계조사 조사표 수신
 - 통계조사 관련 미제출 업체 제출 독려 및 문의 대응

- 통계조사 수신 조사표 오류 검토 및 수정 요청
- 재무제표 등 기업 경영자료 입력

나. 조사원 수당 지급(5.21)

- 조사원 조사일지 내용 검토

- 다. 2020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자료 분석
 - 2020년도 원양어업 통계조사 raw data 입력
 - 수산정보포털 생산 데이터, 원협 수출 데이터 특성별 분류

- 원양산업통계 관련 해수부 요청 자료 작성

라. 2020년도 원양산업 실태조사

- 실태조사 용역 나라장터 재공고(5.6) 유찰처리 (5.18)

○ 해외수산시설투자(용자)

- 2020 해외수산시설투자 용자지원 대상자 모집 재공고(5.6)

○ 센터운영 관련

- '21 예산 관련 자료 작성 지원(국제협력총괄과)
- 2020년도 회계감사 계약 체결 추진



오징어 카레해물덮밥



❖ 이렇게 준비하세요

- 조리시간 / 25분
- 재료 / 오징어 1마리, 홍합 8개, 새우 5마리, 옥수나 야채 끓인 물, 쌀 1, 1/2컵, 카레가루 1작은술, 피망 2개, 완두콩 1컵, 토마토 200g, 마늘 1쪽, 백포도주 1큰술, 양파 1개, 소금, 후춧가루 조금, 파슬리 다진 것, 레몬

❖ 이렇게 만드세요

- ① 오징어는 내장을 깨끗이 떼어내고 위에서 아래로 껍질을 벗긴 뒤 몸통 부분을 적당한 두께로 썰어 링 모양이 되게 한다.
- ② 새우는 껍질을 벗겨내고 홍합은 솔로 깨끗이 씻어내고 백포도주를 넣어 살짝 끓인다.
- ③ 피망은 가로로 6쪽 썰기하고 양파, 마늘은 잘게 다져 둔다.
- ④ 넓은 냄비에다 양파, 마늘을 먼저 볶다가 피망을 넣어 볶아낸다.
- ⑤ 씻어 둔 쌀에 카레가루를 넣어 볶다가 토마토와 옥수, ②의 국물을 넣고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맞춘다. 끓기 시작하면 오징어, 홍합, ④와 완두콩을 넣고 불을 약하게 줄인 뒤 뚜껑을 열어둔 채 20분 정도 익힌다.
- ⑥ 다 익으면 파슬리 다진 것을 살짝 뿌리고 레몬을 곁들여 낸다.



명예해양수산물 리포트(5월)

김점봉 세네갈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점봉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세네갈 다카르와 감비아 반 줄, 항만 협력 재개

- 1977년 서명, 2019.3.15 갱신된 다카르와 반줄의 항구 부문 파트 너십 계약이 정식 실현됨.

나. 대통령, G20에 지원 호소(5.28)

- 마키 살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코로나19 사태 경제발전 재원조달 고위급 화상 회의에서 G20 국가들에 아프리카 경제 발전 지원 호소.

다. 한인회 코로나19 성금 전달

- 재 세네갈 한인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세네갈인들을 위해 세네갈 거주 한국인들을 중심으로 모금운동 실시. 700만 세파(약 1,400만원)를 모금하여 세네갈 재정경제부로 전달함.

라.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파운드, lbs)	가격 (달러/톤)	기타
황다랑어	20 lbs 상	2,045	
	7.5~2 lbs	1,250	
	4~7.5 lbs	1,150	
눈다랑어	20 lbs 상	1,200	
	7.5~2 lbs	1,200	
	4~7.5 lbs	1,150	
가다랑어	7.5 lbs 상	1,200	
	4~7.5 lbs	1,150	
	3~4 lbs	1,000	

마.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세네갈 다카르항 내 공급가	경유 337 유로 / MT	'20.5.29

김종태 피지 명예해양수산물관



김종태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동향

- 코로나19 관련 지난 5일 마지막 환자의 퇴원으로 현재 피지는 코로나 환자가 없다고 발표됨.
- 하지만 야간 통행금지, 밀집 체육시설 및 유흥시설의 개장금지는 계속되고, 학교 개학은 6월말로 연기되었으며 항공편의 재개는 7월말로 재 연기되었음.
- 로컬 연승어업은 항공편 중단으로 인한 빙장판매 어려움으로 대부분의 선박들이 알바코어 조업 위주로 전환하고 있고 경영난으로 운항을 못하여 앵커링하는 선박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임.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	가격 (달러/톤)	기타
날개다랑어	10kg 상	3,050	로인가공용(PAFCO)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TOTAL	\$813/ kl	'20.6.10



오시영 사모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오시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조업 동향

- 사모아 및 인근해 어장인 쿡아일랜드에서 연승선 평균 어획량은 날개다랑어 0.5-1톤, 황다랑어/눈다랑어 0.4-1톤.

나. 선원 묘지 참배

- 5월25일 아메리칸사모아 메모리얼데이를 맞이하여 한인회 회장단 및 교민, 수산업 관련종사자와 전체묘지 4구역을 헌화 참배.

다. 선원 묘지 참배

- 아메리칸사모아 정부는 6월 1일부터 30일 동안 시행되는 "COVID19 관련 규제시행령"에 대한 변경사항을 발표함.
- 모든 사립 및 공립학교, 대학교 잠정휴교하며 원격 수업으로 대체함.
- 모든 사업장의 영업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까지로 연장함.
- 모든 공공장소, 교회 및 집회, 체육시설 장소 등 모임은 150명 이하 조건부로 규제 해제하고 다만 모임시 마스크를 착용 하여야함.
- 스타키스트 참치 통조림 공장(동원산업) 및 외주 업체는 특별히 고용인 제한 없음, 24시간 영업 할 수 있도록 허가됨.
- 국제선 및 국내선 모든 항공편 중단 연장됨. 7월 1부터는 항공편 운항 예정임.
- 어선 및 운반선은 입항할 수 있으나 사전 입항 시 보건국에 허가를 받아야함.
- 확진자가 한명이라도 발생되어 코드 옐로우로 될 경우, 영업시간을 오전 5시-오후 4시까지로 변경, 오후 9시부터 통행금지 시행됨.

- 코드 레드 상황 발생 시에는 영업시간이 오전 5시-12시까지 제한되며, 모든 공공모임이 제한됨.
- 현재 아메리칸사모아는 코드블루상태임.

라. 참치가격 동향

회사명	어종	규격(kg)	단가 (\$/MT)	기타
Star-Kist	황다랑어	라운드	1,400	
	눈다랑어	라운드	1,200	
Sarua Co.	가다랑어	라운드	1,200	

※ 가다랑어의 경우 선망선 가격 별도

마.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Clipper; Oil	\$1.98(gallon)	'20.6.8

윤정환 뉴질랜드 명예해양수산물관



윤정환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오징어 어업 동향

- 주요 어종인 오징어 시즌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음. 한국 선박 외 현지 선박은 이미 오징어 어획을 그만 두었고 한국 선박 4척만 오징어 어획을 유지하고 있음.
- 작년에 비해 오징어 어획은 좋지 않았음. 어획량도 줄었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판매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아 어가도 폭락하였음. 이제 오징어 시즌이 끝나가니 바이어들이 구매를 시작할 것으로 기대되나 어가가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함.

나. 코로나 사태 마무리

- 뉴질랜드는 6월8일부터 국가비상사태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로 접어들었음.



- 16일 연속 신규 확진자 0명, 마지막 코로나 환자가 회복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는 퇴치된 것으로 간주됨.
- 따라서 국내 모든 사업 및 공공기관은 코로나 사태 이전과 같이 정상적 운영되지만 해외출입자에 대한 제한은 계속됨.

다. 어류가격 동향

어종명	사이즈	가격(달러/톤 /FOB 기준)	기타 (회사명)
SQUID	2L	3,500	Sea Jho Co.Ltd
	L	3,500	
	M	3,000	
	2M	2,800	
	S	3,050	
	2S	2,350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Z	MGO \$487/MT (Bluff에서 공급 기준)	'20.6.9
	LMFO \$433/MT (Timaru에서 공급 기준)	

이윤홍 가나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윤홍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cPioneer Food Cannery(PFC) 공장 폐쇄 후 작업 재개

- Tema의 참치 가공 공장인 PFC가 COVID-19에 공장 직원 533명이 집단 확진, 공장 폐쇄된 후 3주만에 부분적이거나 가공 작업을 재개하였다.

- 5월 9일 부로 전 공장 내 완전 방역을 확인했고 확진자와 접촉했던 직원들의 자가 격리도 실시, 일부이지만 공장 가동을 실시함.
- 위생관에 의해 성공적으로 접촉 추적 경로를 확인하고 조치, 회사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폐쇄를 풀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런 결과로 PFC는 이전 정상적인 가동 시 하루 원어 120톤 가공 여력이 있지만, 당분간 하루 20톤 정도 원어 가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가동 개시 당일 관리 직원들이 비공개회의를 하는 동안 일부 가공 직원들은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 Starkist Tuna를 생산하고 국내 소비와 수출을 위한 별도의 브랜드로 생산하는 회사인 PFC는 제한적인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되기 전에 보건 당국과 긴밀한 협조가 있었다고 알렸다.

나. 선박 대리점들 새로운 세관 관리 시스템 이용해야

- Ghana Revenue Authority(GRA)는 해운회사들과 선박대리점이 Tema항을 입출항 할 시 Manifest를 새로운 운용 시스템인 Integrated Customs Management System(ICUMS)을 이용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 마찬가지로, Bill of Entries(BOEs)를 획득하기 위한 Customs Classification과 Valuation Reports(CCVR)와 Manifest, Bill of Laden(BL)을 늦어도 5월 26일까지 모든 입항선들은 ICUMS를 통해 재 수속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이 지시 내용은 GRA의 Mr. Ammishaddai OWusu Amoah 국세청장 대리에 의해 서명된 25일자 공문에 적혀 있다. 이 지시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은 6월1일 전면 실시를 위해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다.



- 청장은 이미 BOEs를 받았거나 받기 위해 Ghana Community Network Services(GCNet)에 운용되는 Ghana Customs Management System(GCMS)에 Manifests를 이미 제출한 수입업자나 대리점들은 6월 1일 까지 수속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아무튼 BOEs와 함께 미 통관된 어떠한 화물도 6월1일 발효되는 Uni-Pass system으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GCNet 상에서 복잡한 여러 단계의 수속을 거치게 될 것이라 말했다.
- The Minister of Trade and Industry의 Mr. Alan Kyerematen 장관, Mr. Carlos Ahenkorah 차관, Mr. Owusu Amoah 국세청장 대행과 관세청장 Mr. Kwadwo Damoah는 해운 관련자들과 6월1일 개시를 위한 정확한 지침을 내리기 위해 Tema 항에 모여 협의하였다.
- 장관은 시스템의 원만한 변환을 위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의 Delivery Order(DO)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모든 터미널 운영자들에 지시하였고, 이는 미 통관된 화물을 상세하게 파악, ICUMS으로 이동하여 통관을 지속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 참치가격 동향

어종	규격(kg)	가격(U\$)/톤	기타
황다랑어	10kg 상	1,380	
	10kg 하	1,180	
가다랑어	3.4kg 상	1,530	
	1.8kg 상	1,480	
	1.8kg 하	1,430	
	1.5kg 하	1,180	

다.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격	조사일	기타
Ghana Oil	\$430/kl MGO	'20.5.31	육상급유
SK B&T	\$395/kl MGO	'20.5.31	양상급유

이재원 인도네시아 명예해양수산물관



이재원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 늘릴 기회 살려야

- 인도네시아 수산물 생산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나, 수산물 수출은 적절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2018년 FAO 자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는 양식 생산량 세계3위, 해양 어획량 세계2위, 내수면 어획량 세계6위, 해초류 생산은 세계2위에 올라 있으나 수산물 수출은 세계12위.
- 인도네시아 수산물 유통 가공사업자 협회장 Budhi Wibowo씨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은 침체를 보이고 있고 가공산업이 원료 공급 부족으로 적절한 수출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함.
- 원료 공급을 충분히 하고, 원료 가격을 안정시킨다면 다른 국가와 경쟁하여 시장을 넓힐 수 있다고 함. 현재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공장 가동율은 52%에 불과, 가공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면 자동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주장함.
- 새우가공산업의 경우, 인도네시아의 연간 가공 생산 역량은 55만톤이나 원료공급은 35만톤에 그쳐 20만톤이 부족함.
-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수산물 수출량은 118만톤으로 2018년의 113만톤에서 1.54% 증가함.
- 2019년도 수산물 수출액은 49억 4천만 달러로 2018년의 48억 6천만 달러보다 5.16%증가, 주 수출국은 미국, 중국, 일본, 아세안, EU 순임.



- 해양수산부 수산물 경쟁력 강화 총국장 Nilanto Perbowo에 따르면 수산물 수출에 있어 인도네시아 내 수산물 원료 운송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함(수산물생산 지역은 동부지역이지만 수산물 가공공장은 서부지역에 몰려 있음)
-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 주 수출국인 미국과 중국에 주 어종 수출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말함.
- 미국 : Tuna, 가다랑어, 틸라피아, 새우
- 중국 : 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해초류, 새우, 갈치, 어란, 뱀장어, 바다가재, 해삼

나. 2019년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출동향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자료)

- 수출품목(금액- USD)
 1. 새우(35%) : 17억 1904만불
 2. 참치, 가다랑어 등 고등어과류(15%) : 7억 4,754만불
 3. 연체어류(11%) : 5억 5,629만불
 4. 꽃게 등 게 종류(8%) : 3억 9,343만불
 5. 해초류(7%) : 3억 2,485만불
 6. 틸라피아(1%) : 6,696만불
 7. 기타(23%) : 11억 2,690만불
- 수출대상국가 (금액 : USD)
 1. 미국(37%) : 18억 2,900만불
 2. 중국(17%) : 8억 2,800만불
 3. 일본(13%) : 6억 6,500만불
 4. 아세안국가(11%) : 5억 4,500만불
 5. EU국가(8%) : 3억 8,000만불
 6. 기타국가(14%) : 6억 8,800만불

이호상 페루 명예해양수산물관



이호상
명예해양수산물관

가. 2020년 PERU 수역 제 1차 멸치 (ANCHOVETA) 조업 시즌 상황

- 조업 수역 : 페루-에쿠아도르 국경 수역에서 남위 16도선.
- 5/13 부터 6/1까지의 어획량 556,649톤 : 총 허용 어획량 2,413,000톤의 23.07% (코로나 사태로 5월 13일 조업 개시)
- 5/13 부터 6/1까지의 주 조업지 (남위 07도 30분 - 남위 11도 00분)
- 조업 선박 : 313척 (목선 84척, 철선 229척)

나. PERU 코로나 국가 비상사태

- 5.22 대통령 담화를 통하여 6월 30일까지 연장됨.
- 특별규정 적용되어 상선과 어선들의 입·출항과 통상적인 항내 업무는 가능하나, 국제간 항공편을 이용한 선원 입·출국 업무는 불가함.
- 6월 6일 기준 : 코로나 확진 191,758명. 사망 5,301명. 완치 82,731명임.

다. 원양어선 한국선원들의 페루 코로나 사태 기부금 모금

- 장기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 방역 물품이 매우 부족, 최근 페루에서 출항한 한국 원양어선에 승선중인 한국 선원들이 성금을 모아 페루 한국 교민회에 기부, 교민회에서의 기부금과 합하여 방역물품 주문 / 제작 후 페루 의사 협회에 전달함.
- 물품 전달 내역 : 방역용 마스크 1,000장, 방호복 1,030벌, 안면 보호대 1,015개.

라. 유류가격 동향

회사명	가 격	조사일
PETROPERU	\$2.23 / 갤런 MDO	'20.6.5



정연국 남아공·모잠비크 명예해양수산물



정연국
명예해양수산물

가. 남아공 동향

- 소규모 어업인들은 covid-19와 관련된 새로운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식당, 호텔 및 케이터링 사업의 폐쇄로 신선한 해산물에 대한 수요 급감. 운송 제한으로 인해 무역이 위태로워짐.

나. 모잠비크 동향

- 현재 금년도 허가를 받아 조업 중인 수산회사들은 어획량이 좋으며 물량 목표도 달성하고 있다고함.
- 어업금지 기간(1월~3월말) 덕분일 수 있으며, 작년에 허가를 받았던 외국어선의 대부분이 금년도에 어업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일 것.
- 5월 모잠비크 정부는 국유 회사 Ematum를 공식적으로도 폐업하기로 결정함. 스캔들 이후 지금까지 Ematum의 실질적인 회사운영은 중단되었음.
- 5월 28일 밤, 필리프 니우시 모잠비크 대통령은 코로나19 전염병에 대응하여 결정된 비상사태의

추가 연장을 발표했음.

- 이번 두 번째 연장은 5.31~6.30까지로 헌법은 비상 상태를 최대 90일로 제한하므로 세 번째 연장은 불가.
- Sofala 지방 Beira 어항 근처에 위치한 Munhava 인근의 일부 지역주민들은 코로나19를 가진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음.

다. 나미비아 동향

- 어업 폐쇄 제한을 완화하지만 Walvis Bay는 6월 6일까지 강제 폐쇄됨.
- 5월 5일에 어업부문이 재개되었음.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보호 수단을 입증할 수 있는 선박들만 조업할 수 있고, 가공공장들도 사회적 거리를 지키며 일할 수 있게 허락되었음.

라. 유류가격 동향

지역	가 격	조사일
Durban	IFO380 \$282 / MT MGO \$468 / MT	'20.5. 28
Cape	MGO \$477 / MT	

〈계재순서 : 명예해양수산물 성명 가나다순〉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지를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각종 악재로 황다랑어 어가 하락 공급 증가 및 수요 감소로 최악, 점차 회복 가능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식 감소와 중서부태평양에서의 황다랑어 어획량 증가는 전 세계 시장에서 참치 어가를 더할 수 없이 나쁜 상황으로 이끌었다.

지난 두 달 동안 중서부태평양 선망선들은 이례적일 정도로 좋은 황다랑어 조업 시즌을 보냈다.

Atuna 소식통에 따르면 황다랑어는 보통 중서부태평양 선망선 참치 어획량에서 25% 정도를 차지하지만 이번에 일부 선박은 놀랍게도 75~80%라고 보고했다. 어획량은 대부분 부상군 조업으로 잡은 것이다.

중서부태평양에서 어획한 황다랑어는 보통 방콕 시장으로 운송된다. 현재 태국과 인근국인 베트남의 수요는 공급라인으로 들어오는 엄청난 황다랑어 공급량을 충족시키기에 부족하다.

대부분의 태국 캔 가공 공장은 FAD로 어획된 황다랑어 어군에 섞인 소형 황다랑어를 구매하거나 부상군 조업 및 채낚기로 잡은 황다랑어를 구매한다.

방콕에 있는 Atuna 소식통은 부상군 조업 및 채낚기로 잡은 황다랑어의 최근 가격은 크기에 따라 톤당 약 1,800~2,000달러(1,605~1,784 유로) 정도라고 한다. 비선별적인 FAD 조업 소형 혼합 황다랑어는 일반적으로 훨씬 가격이 낮다.

베트남 가공업자는 미국과 유럽의 요식 시장을 목표로 하는 냉동 로인과 스테이크 제품 수요가 완전히 축소되어 황다랑어 공급 시장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베트남 선주와 무역업자들은 황다랑어 원물 판매를 위한 시장을 찾기 위해 애쓰고 있다. 아시아에 로인 및 스테이크를 판매하는 매장이 거의

없어 무역업자들은 많은 양을 유럽 캔 가공업자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UnderCurrentNews에 따르면 현재 스페인에 운송된 냉동 황다랑어 원물 가격은 톤당 1,800~1,850 유로이며 5월초에는 2,350 유로였다. 현재 가격은 2월 2,700 유로에서 30% 이상 하락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황다랑어 캔의 주요 소비처이다.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식당과 카페가 문을 닫는 등 코로나 영향을 받은 외식 분야와 다르게 참치를 비롯한 캔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이다.

대서양에서 황다랑어 조업 강도가 강해지고 있다. FAO의 Globefish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황다랑어(10kg 이상) 어가는 4월 톤당 2,380 유로에서 5월 2,050 유로로 13.8% 하락했다.

세이셸 캔 가공업자의 원재료 재고는 양호하지만 황다랑어 가격은 하락했다. 4월말에 황다랑어(10kg 이상)는 톤당 2,250 유로에 거래되었지만 5월 조사 가격은 2,100 유로였다.

많은 EU 국가들이 서서히 락다운 조치를 완화하여 식당과 카페가 문을 열고 있다. 황다랑어 수요 회복을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동부태평양 수역에서 선망선 어장 폐쇄(veda)와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 FAD 금지가 7월에 시행되어 황다랑어 어획량 감소로 어가가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할 수도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6월 3일자



냉동 눈다랑어, 대만 600엔 붐괴

일본 재무성 4월 통관 자료 수입 실적

일본 재무성 통관 통계에 따르면 4월 참치류 수입 실적은 신선·냉장물이 583톤(전년 동월 대비 45% 감소), 7억 5,600만 엔(51% 감소)이었다.

냉동물은 2만 1,262톤(3% 감소), 224억 4,600만 엔(22% 감소)이었다. 가공품은 4,223톤(4% 증가), 24억 7,000만 엔(3% 감소)이었다.

냉동 눈다랑어는 6,166톤(22%). 이 가운데 대만이 3,500톤(29% 증가)으로 수량은 증가했지만 CIF 단가는 kg 592엔(26% 하락)으로 하락했다.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수요 둔화도 심각해 초저온 냉동창고 만고 상태 및 운반선 위판 대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 때문에 단가는 3월부터 추가로 8% 하락하게 되어 마침내 600엔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 여름 이후 인도양 풍어에 따라 올 3월에 1,171톤까지 실적을 신장한 아르헨티나가 4월에는 감소로 전환되어 360톤이었다. 이에 비해 바누아투

는 1,156톤(44% 증가)으로 급증했다. 바누아투가 4월 한달만으로 1,000톤을 초과한 것은 전년 6월의 1,053톤 이후 처음이다. 적체되었던 선편이 재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가는 612 엔(25% 하락)으로 떨어졌다. 냉동 황다랑어는 지난해 가을에 풍어였던 인도양 산이 계속 입하되어 4,147톤(14% 감소)으로 여유가 있었지만 아까미(적신) 상품은 이미 약세였다. 단가는 400 엔(22% 하락)으로 하락세가 멈추지 않았다. 300 엔대 돌파도 코앞이다.

냉동 참다랑어 필렛은 6,286톤으로 3월의 1,898톤보다 늘었다. 최근 5년간으로는 이례적인 대량 반입이었던 전년 동월 7,357톤 다음 정도였다. 몰타와 터키 등 지중해 주변국 양식물 가공과 선편이 겹친 탓이지만 단가는 2,165 엔(11% 하락)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0년 6월 4일자

일본 게센누마 가다랑어 중형 지난해 절반 수준 예상

일본 수산연구교육기구, 어업정보 서비스센터 금년도 조업 전망

올해 미야기-게센누마의 일본조 어업 가다랑어 어획량은 대형 사이즈의 경우 지난해를 웃돌지만 중간 사이즈는 지난해의 절반 정도가 될 것 같다. 일본 수산 연구·교육기구와 어업정보 서비스센터가 5월 26일 이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이 항구 예측 어획량은 대형 사이즈가 1,600톤(전년도 1,340톤), 중형은 4,600톤(8,380톤)이 될 전망이다.

중간 사이즈의 감소는 치바 보슈 가쓰우라의 1~3월 어획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이 시기에는 일본조 어선에 의한 어장이 큐슈·오키나와 서쪽 기슭에 형성되었고 가고시마와 시즈오카 오마에

자키도 어획량이 부진했다.

3월 시점의 이즈 제도 남부의 표면 수온은 지난해보다 약간 높아 가다랑어의 복상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이다. 올 봄 고우치-미에 주변 해역의 가다랑어 내유량은 지난해 및 지난 5년 평균을 모두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안 해역의 어획량은 적을 가능성이 있다. 쿠로시오 난류의 영향으로 연안역 어장의 수온이 가다랑어 내유를 방해하는 19도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1일자



냉동 가다랑어 시세 둔화

세계 경제 침체 영향, 태국 방콕 제품 생산 효율도 감소

올 들어 가격이 상승했던 태국 방콕의 냉동 가다랑어 시세가 5월 들어 하락하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으로 전 세계에서 외출 자제에 이어 통조림 수요가 늘고 있는 반면 감염 예방 대책에 따른 생산 효율 악화와 세계 경제 침체 영향을 받아 원료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에 톤 당 1,000달러(약 1.8kg 사이즈)를 밀돌았던 방콕 시세였지만 그 후로는 올해 4월까지 1,550 달러까지 회복되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고모리(집안에 틀어 박혀 있기) 수요로 통조림 수요가 높아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나 풍어로 공급이 좋은 가운데 신종 코로나 감염 예방으로 태국의 대형 통조림 회사 공장이 제조 라인 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 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되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어 생산 효율이 저하되었다. 더욱이 실업자 증가 등 세계 경제 침체 속에서 제품 가격 인하 요청도 나오기 시작했다. 때문에 원료 시세에 영향을 준 것 같다.

일본 국내에서는 외식용과 학교 급식용 수요가 격감한 것으로서 가다랑어 포 생산이 중단되고 있다. 가공업체 관계자들은 『업소용을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곳은 지난해에 비해 60% 이상 수입이 감소되고 있다』고 말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주력 산지로서는 5월 황금연휴에 10일 휴무를 취한 곳도 있고, 전대미문의 사태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가정용 제품은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어 가공업체 관계자들은 『하나가쓰오(가다랑어 포를 잘고 얇게 썬 것) 국물 팩, 멸치까지 수산 건어물의 움직임은 매우 좋다. 집에서 시간을 들인 요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가다랑어 포 생산은 업소용 비율도 높아 음식점 등이 업무를 재개하지 않는 한 본격적인 생산 재개는 되지 않고, 일본 국내 냉동 가다랑어 시세도 약세 경향으로 변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수산경제신문 2020년 5월 20일자

방콕 가다랑어 어가, 2019년 추세 따라가

톤당 1,300 달러 수준으로 하락

Atuna가 접촉한 다양한 소식통이 상충되는 정보를 제공했지만 방콕 가다랑어 시장 가치 하락이 명확하게 나타났다. 현재 가다랑어(1.8kg 이상) 어가는 톤당 1,300 달러 정도 수준을 맴돌고 있다.

일부 산업 소식통은 방콕의 참치캔 가공업자들이 톤당 1,200 달러를 요구한다고 한다. 하지만 1,200 달러 수준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사례는 확인된 바 없다.

현재 원물 가격은 Atuna가 이전에 보고한 톤당 1,400 달러 보다 7% 하락했다.

현재 시장은 작년과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는 추세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선주들은 7월에 FAD 금지 조치가 시작되면 2019년과 같이 가격이 상승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5월 28일자



냉동 가다랑어 브라인 동결품(B) 시세 하락세

시즈오카 야이즈 5월 해외선망 어획량 최근 78% 증가

포·통조림용 냉동 가다랑어 시세가 하락하고 있다. 시즈오카현 야이즈어협에 따르면 해외선망 어선 브라인 동결품(B)의 시세는 5월 25일 현재 2.5kg 사이즈가 kg당 155~165 엔, 1.8kg 사이즈는 165 엔. 전월보다 30엔 가까이 떨어졌다.

최근 해외선망 어선에 의한 조업 양상이 순조로워 야이즈항의 브라인 동결품(B) 위판량은 4월보다도 증가했다.

야이즈항의 5월 브라인 동결품(B) 위판량은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한 4,700톤으로 예년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최근에는 해외선망 어선에 의한 어획물이 위판되고 있으며, 어획량이 적었던 4월에 비해 78% 증가했다. 고가였던 B 시세는 5월 중순부

터 떨어지기 시작했다.

5월은 사이즈가 작은 개체가 많았고, 1.8kg 이하 사이즈는 전년 동월의 5배인 1,292톤을 어획했다. 한편 4.5kg상은 10% 감소한 1,064톤, 2.5kg상은 36% 감소한 781톤, 1.8kg상은 85% 감소한 294톤이었다.

야이즈항의 원양일본조 어선에 의한 어획량은 가다랑어에서 날개다랑어로 전환되고 있다. 5월의 B1 날개다랑어(7kg상, 10kg상) 위판량은 1,110톤으로 흥어였던 전년 동월을 크게 웃돌았다. 풍어로 인해 시세는 하락해 10kg상은 6월 1일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0% 떨어진 kg당 235 엔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20년 6월 5일자

돗토리 사카이미나토에서 선망 참치 첫 위판

지난해 3배인 84톤, 최고가 2,700엔

사카이미나토항(돗토리현 사카이 미나토시)에서는 6월 5일 선망 어선에 의한 참다랑어가 올해 처음으로 위판되었다.

위판량은 전년의 2.8배인 84.4톤 (1,857 마리). 지난해보다 5일 늦은 첫 위판이었다.

共和水産(共和市)의 선망 선단이 니가타현 사도 앞바다에서 어획했다. 최고가는 지난해 첫 경매가보다 kg 당 500 엔 높은 2,700 엔, 평균 단가는 67 엔 낮은 1,833 엔이었다.

최대 크기는 1마리 105kg으로 전년도의 35kg보다 대형 참다랑어가 첫경매를 장식했다. 평균 크기는 1마리 당 45kg이었다.

사카이미나토 수산사무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이 걱정되었지만 지방질이 풍부해 인기도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 영향에 따라 올해는 어획 첫날 칸사이 백화점에서 실시해온 참치 해체소와 판매회를 중지했다. 사카이 미나토 수산 사무소는 수도권이나 칸사이 권역의 백화점 등에 참치를 제공하고 사카이 미나토산 참다랑어의 소비 촉진에 힘쓴다"고 말했다. 어식 보급 동영상에 의한 PR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20년 6월 8일자



도요스 시장 신선 가다랑어 전년比 70% 감소

5월 8~21일 하루 도매 수량 15톤, 3~5kg 중심 30% 상승

도쿄 도요스 시장의 신선 가다랑어 입하가 저조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5월 8~21일까지 하루 도매 수량은 전년 동기 대비 67% 감소한 15톤이다. 어시장 관계자는 『회유량이 적고, 양륙 수량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도매 관계자는 『주력 산지인 치바에서 가공 원료로서의 수요가 많은 날개 다랑어를 우선적으로 어획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월 중순 입하의 주력은 치바산 일본조 어획물로서 미야자키와 가고시마에서도 입하되고 있다고 시장 관계자는 밝혔다.

중심 사이즈는 1마리 3~5kg로 중심 도매가는 전년 동기 대비 20~30% 비싼 kg 800~1,300엔이다. 입하량 감소가 단가 상승으로 이어졌다.

주요 판매처는 양판점과 중도매점이며 어시장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주점 등 음식점에서의 수요가 부진하다』고 설명했다.

시장 관계자는 품질에 대해서는 『지방질이 좋다』고 평가했다. 아니사키스에 의한 식중독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보고는 없다』고 했다.

한편, 다른 도매상 관계자는 『재작년의 보도 이후 양판점 등에서 신선 가다랑어의 수요가 줄고 있다』고 말했다.

향후 전망에 대해 도매 소식통은 『어군의 복상에 따라 치바는 6월말에서 조업을 종료하고 7월 이후에는 미야기현 이시노마와 게센누마의 선망 어획물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25일자

참치 어체 측정 자동화, 효율적으로 급이

토요타 통상과 NEC가 서비스 개발

미도요타 통상(나고야시)과 日本電氣(NEC, 도쿄도 미나토구)는 참다랑어 양식 종묘(요코와=참다랑어 새끼, 체장 20cm 이상)를 대상으로 한 어체 측정 자동화 서비스를 공동 개발했다.

이미 5월 1일부터 도요타 통상 그룹의 완전 양식 참다랑어를 육성하는 참치 드림 고토(나가사키현 고토시), 참치 드림 오키나와(오키나와현 나고시)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기반으로 어획시기 및 사료 양을 결정할 수 있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

이 서비스는 2018년에 도요타 통상과 NEC의 인공 지능(AI) 및 사물 인터넷(IoT) 기술을 활용

하여 개발한 서비스를 개량한 것이다. 이전에는 60cm 이상의 성어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사이즈보다 작은 어체 사이즈 측정에는 축양 시설 내의 촬영 영상을 1마리씩 수작업으로 측정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새 서비스는 어체 체형 인식 정확도도 향상되었다. 양사는 수산업의 AI, IoT 기술 활용에 의한 지속 가능한 수산 자원의 공급을 위한 노력을 추진, 유엔의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인 「해양과 해양 자원을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이용한다」의 달성에 공헌하고 있다고 한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25일자



MSC 가다랑어, 참치 급증

2018년도 세계 실적 판매량 3년 사이 두 배 이상

수산 에코 라벨 'MSC'를 운영하는 해양관리협회의(MSC)는 최근 MSC 인증을 가진 가다랑어와 참치의 세계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15년도에 2만 1,500톤이었던 판매량은 2018년도에 5만 4,000톤으로 증가했다. 2019년도의 판매량은 『현재 집계 중이지만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MSC 측은 밝히고 있다.

해양관리협회에 따르면 MSC 인증된 가다랑어·참치는 세계 41개국에서 판매되고 200개 이상의 기업이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기업으로 참치캔 제조업체인 타이 유니온(태국)과 볼튼 푸드(영국) 등이 꼽혔으며 일본은 이온 등이 취급하고 있다.

〈어획량의 30% 육박〉

가다랑어·참치 인증 어업은 2014년 9월 현재 8건이었지만 현재까지 29건으로 증가했다. 총 어획량

중 인증 어업에 의한 어획 비율은 2014년 14%였던 반면 현재 28%로 증가했다.

협의회는 『가다랑어·참치의 세계 시장 규모는 연간 420억 달러 이상이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만도 600만 명 이상이 가다랑어·참치와 관련된 사업에 종사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큰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협의회 측은 『가다랑어·참치 자원 중 「건강한 상태」라고 되어 있는 것은 65%이고, 17.5%는 「과잉 어획」이다. 나머지 17.5%는 「건강한 상태」와 「과잉 어획」 사이의 상황에 있다』고 자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MSC 인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으로 자원을 미래 세대에 남기는 것에 일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20일자

일본 신선 날개다랑어 풍어, 지난해 3배 넘는 9,800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 5월 1일~28일 보슈 가쓰우라, 케센누마 중심

일본의 신선 날개다랑어 어획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5월 1일~28일 전국 주요 항구의 어획량은 어획이 저조했던 지난해 5월의 월간 어획량의 3.4배인 9,822톤에 달했다. 현재 주요 어획 항구는 치바 보슈카츠와 미야기케센누마. 보슈카츠는 1일~28일 전년의 3 배인 3,608톤을 어획했다. 케센누마는 이번 시즌 첫 가다랑어 일본조 어선이 입항한 5월 13일 이후 어획량이 본격화해 5월 28일까지 4,464톤이었다.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같은 기간 전국 주요 항구의 평균 위판 가격은 전년 5월에 비해 10% 낮은 kg당 377 엔이었다. 4월말

에 이즈 제도 수역에 출현한 어군은 이후 동진, 현재는 보소반도 동쪽의 쿠로시오 난류 유역에서 일본조로 어획되고 있다. 이바라키-후쿠시마 앞바다에서는 선망으로 어획되고 있으며, 선망 어획물이 많은 것이 올해의 특징이라고 어업정보 서비스센터 측은 말했다. 크기는 예년 수준인 1마리 7~9kg 중심이며, 10kg 이상도 많다고 한다. 조업은 7월 초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향후 『어군은 동쪽으로 향하면서 북쪽으로 치우쳐 동경 160도 부근이 되면 일본조 어업의 어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센터 측은 밝혔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1일자



일본 닛카츠어협 코로나로 인해 생존 위기

원양 가다랑어 참치 대책 호소, 자민당에 요청

일본 닛카츠어협의 아마시타 준 조합장은 6월 2일 자민당 가쓰오 참치어업 추진 의원 연맹의 스즈키 슌이치 회장(자민당 총무회장)에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원양 참치 연승 어업 및 원양 가다랑어 일본조 어업 피해에 대한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수산종합조사위원회의 하마다 야스카즈 회장에게 요청한데 이어 열린 가다랑어 참치어업 의원 연맹에서는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간사장, 사무총장 등이 아마시타 조합장 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마시타 조합장은 『현재 선원의 교대나 항해에 필요한 인원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피서버와 엔지니어 등 기술자 파견·귀국, 필요한 물자의 현지 수송도 쉽지 않은 상황에 빠져 있다』고 조업 현장의 처지와 수요 감소에 따른 영향 등을 호소하면서 『이대로는 원양 가다랑어 참치 업계의 생존조차 의심된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를 확대시키지 않기 위해 선원의 쇼어패스(승선을 위한 임시 상륙 허가)에 의한 승하선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 조치의 관계국 움직임과 승선전 PCR 검사 의무화와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예정 밖의 계선 연장이나 휴일 등의 고정 비용에 대한 보조 제도 창설과 귀국에 소요되는 할증 비용 등의 구제책과 정상화까지 증서 및 검사 기간의 연장 조치 등 제도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스즈키 의원 연맹 회장, 카네코 부회장들은 『모두 여러 나라에 관한 문제다. 수산청은 외무성과 잘 연계해 대처해야 한다』고 수산청에 지시하고 문제가 여러 갈래에 걸쳐서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파악과 즉각적인 대책 이외에 장기 대책도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고 하며 지원책을 검토해 나갈 생각을 나타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0년 6월 4일자

일본 참치 양식 업체 카리참치, 식품 안전의 국제 인증

크로아티아 공장에서 FSSC 대서양 HACCP 등

크로아티아에서 참다랑어 양식을 영위하고 있는 카리참치(고베 지로 사장)는 5월 8일 자사 양식 참치 등을 가공하는 현지 직영 2공장에서 식품 안전 국제 규격인 FSSC22000과 ISO22000, 대미 및 대 유럽연합(EU) HACCP를 취득했다. 이 회사는 수산물 무역 회사 제이 트레이딩(도쿄도 치요다구)의 자회사다.

제이 트레이딩은 2014년 12월 카리 참치를 인수했다. 가공 기능 및 냉동 보관 기능을 확충해 자사 양식 참치를 로인, 샤쿠 등으로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GG(엘라 배 제외)를 포함한 자사 양식물 판로는 일본, 미국,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이 회사 고베 사장은 『유럽은 신종 코로나 바이

러스 감염 확대 등의 영향으로 휴업중인 레스토랑이 적지 않다』고 하면서 『카리 참치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확실하게 성장하고 있는 많은 음식점이나 소매점과 거래가 있다. 그러한 고객들에게 더욱 신뢰를 획득하고 우리 참치를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인증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인증을 획득하면 그것으로 좋은 것은 없다. 직원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항상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계속해 일본 시장에서도 더욱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에서 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1일자



일본, 태평양 참다랑어 대만 이양분 배분 결정

2020년 어기 수산청이 도, 도, 부, 현에 200톤 배분

일본 수산청은 5월 27일 수산정책 심의회 자원관리 분과회에서 태평양 참다랑어 2020년 어기(근해 어업 2020년 1월~12월, 연안어업 4월~2021년 3월)의 분배량에 대해 대만으로부터의 이양분 및 도, 도, 부, 현 간 등의 용통 분을 가미한 새로운 분배량을 보여 주었다.

대만으로부터 양도받은 대형어(30kg 이상) 300톤의 쿼터는 도, 도, 부, 현에 200톤, 중대형 선망어업과 근해 가다랑어 참치어업에 각각 50톤을 배분했다. 이날 동 분과위원회는 이를 승인했다.

대형어 배분량은 전체 5,959.5톤, 이 중 정부의 보유 쿼터는 47톤이었다. 대만 이양 분 중 도, 도, 부, 현에 배분하는 200톤은 前 어기(제5관리 기간)에 미이용 분을 양도한 도, 도, 부, 현을 대상으로 당초 배분량의 최대 7% 상당을 배분했다. 잔여 수량은 동 어기 어획량 실적을 바탕으로 비례 배분한다.

근해 가다랑어 참치어업에 배분하는 50톤은 난세이 제도 주변 해역의 어획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이 해역은 이번 어기에 예년을 웃도는 어획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어획 데이터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일본 수산청은 밝혔다. 대상 해역은 동경 130도 이서의 해역으로 1마리 100kg 이상의 대형어 어획을 예상하고 있다.

30kg 미만의 소형어 배분량은 전체 4,438.1톤이다. 정부의 유보 쿼터를 일부 방출해 도, 도, 부, 현에 50톤을 새로 배분했다.

일본 수산청은 『향후 내유가 늘어나 연안어업의

쿼터 관리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각 도, 도, 부, 현에는 제3관리 기간 배분량 비율을 기초로 추가 배분한다.

〈국제회의 7월 개최 어려워〉

일본 수산청 자원관리부의 오타 신고 심의관은 7월 하순 후쿠오카현에서 개최되는 중서부 태평양 참치위원회(WCPFC) 북소위원회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합동위원회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영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이 시기에 회의 개최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 쿼터 확대가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오타 심의관은 『업계의 강한 요청이 있는 것은 받아들이고 있다. 어떻게든 연기하는 형태로 회의를 개최하여 쿼터 증량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28일자, 일간 수산경제신문 5월 29일자





일본 참다랑어 조업 승인 내년 봄까지 연장

동해 규슈 西광역조정위원회, 취미 낚시 규제도 논의

일본 수산청은 5월 21일 도쿄 도내에서 열린 제35회 동해·규슈 서광역어업 조정위원회에서 동해역에서의 참다랑어 조업을 하는 어선에 필요한 이 위원회의 '승인'이 내년 3월까지 연장될 것으로 결정되었다. 또한 취미 낚시로 잡은 참다랑어가 시장에 줄줄이 서 있다는 의심 때문에 유어 규제도 논의되었다.

종래 수산청은 연안 어선의 참다랑어 조업에 매년 6월말 마감하는 총 허용 어획량(TAC)의 준수를 요구했고, 이 위원회도 각 어선에 대한 승인을 2018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효한 것으로 했다.

다만 참다랑어 내유 시기에 맞춰 수산청은 2019년부터 TAC의 마감을 3월말로 변경했다.

그 결과 앞으로도 참다랑어를 잡으려는 어선에 2020년 7월~2021년 3월의 승인이 나지 않아 어업 관계자로부터 고기잡이를 계속할 수 있느냐는 불안의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수산청은 『낚시꾼들이 낚시로 잡은 참다랑어를 시장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일부 어업 위원들로부터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기 보다는 낚시꾼이 참다랑어를 잡고 있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다』 『어업자는 괴롭지만 잡힌 참치를 방류하는 등 규칙을 지키고 있다』 『낚시질은 어디



까지나 레저이며 금지 해달라』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한 위원(NHK)은 『취미 낚시는 관광 산업에 중요하다. 단지 내쫓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규칙을 지정하는 것이 지역 위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다.

이 회의는 무료 통화 앱 Skype를 이용 원격으로 개최했다. 자주복이나 꽃게에 대한 기존의 관리 대책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결정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25일자





하코다테 오징어도 코로나로 인해 타격

이케스 가격 최근 수년 사이 최저, 첫 위판량 미량 증가

하코다테의 연안 오징어 채낚기 조업이 6월 1일 해금되어 2일 하코다테 수산시장에서 첫 위판이 이루어졌다. 수량은 전년보다 약간 늘었지만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의 영향으로 국내 관광, 음식 수요가 침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활 오징어 가격은 최근 수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첫날에 15척이 출어해 6월 2일 새벽 활 오징어 83박스(811kg), 스티로폼 상자124 상자(한 상자 약 6kg) 총 1.6톤을 가지고 돌아왔다. 지난해 첫 경매(16척분 1.4톤)에 비해 0.2톤 많았다.

회사 담당자에 따르면 어장은 마츠마에·코지마 앞 바다에서 남방으로(하코다테에서) 편도 5~6 시간 걸리는 먼 곳이다.

어군도 아직 적다. 오징어 어체는 평균 65g으로 작년보다 10g 정도 크다고 한다. 가격은 활 오징어가 kg 당 2,000~2,200 엔으로 지난해(3,800~5,200 엔)에 비해 최고가는 반값 이하다. 지난 5년간(2015~2019년 평균 7,020 엔) 중 가장 싼다. 시장 관계자는 『첫 경매 활어조 오징어는 예년에 하

코다테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시내 소매점이나 음식점 등으로 보내졌지만 신종 코로나의 영향으로 『하코다테 아침 시장(하코다테의 관광 명소)도 주변 호텔도 전혀 사람이 오지 않았다. 수요가 없다는 것이다』고 가격 침체 요인을 지적했다.

한편, 스티로폼 상자는 전량 규격이 고르지 않은 소형물로 가격은 상자 당 1,600~4,000 엔이었다. 활 오징어와 마찬가지로 지난해(3,000~4,700 엔)를 밀돌았으나 최고가는 15% 하락해 신형 코로나 재난에서도 판매가 순조로운 할인점에 주로 보내지기도 하는 등 견조했다.

시장 담당자는 앞으로에 대해 『현재 호쿠리쿠 앞 바다에 있는 오징어 어군이 북상하고 있어 어체 크기가 초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에 대해서는 『신형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아직 가공 원료로 사용할 크기도 아니고 당분간은 안정된 수준으로 가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0년 6월 3일자

회원사 소식 및 정보 원고 접수

회원사 여러분에게 보다 알차고 참신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회원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각종 원고를 접수합니다. 회원사의 경조사, 사무실이전, 신제품 생산 등 각종 소식이나 원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제안 등을 아래 송부처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관계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는 적극 원양산업지에 게재하겠습니다. 우리 원양산업을 알차게 꾸미는데 회원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 소 : 서울 서초구 논현로 83, 6층(양재동, 삼호물산빌딩)
한국원양산업협회 홍보·마케팅지원센터(우편번호 : 06775)
- 팩스 : 02-589-1630/1631/○ e-mail 송부시 : kosfa@kosfa.org



남미 아메리카 대왕오징어 어체 소형화, 1kg 이하도 나와 어획량 전년 수준, 가격 하락 추세

최근의 세계적인 오징어 흥어 가운데 비교적 생산 안정을 보이고 있는 중국산 아메리카 대왕오징어(남미 빨강오징어)는 올해 어체의 소형화가 눈에 띄고 있다.

통상 1마리 20kg 가까이 달하는 어종이지만 최근 몇 년 적도 근처에서 잡히는 4kg 이하 개체의 비율이 높아지고, 또한 올해는 1kg 미만의 것이 많다고 상사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수량 자체는 30만톤이었던 작년과 같은 속도로 어획되고 있으며, 가격도 하락 추세다.

남미 빨강오징어는 흥어인 살오징어 등의 대안으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작은 개체는 이 어종의 독특한 산미가 없고, 튀김이나 구이의 원료로 사용하기 편하다.

다만 올해는 더 작은 1kg 이하의 개체가 눈에 띈다. 1kg 이하라고 해서 몇 kg 짜리 개체보다 눈에 띄게 신맛이 얇은 것은 아니다. 또한 오징어 다리 등의 가공에 더 많은 개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품이 더 든다고 한다.

4월말까지의 어획량은 13만톤으로 전년과 같은 추세로 추정하고 있으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에 따른 수요 감소로 위판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구미 수요가 격감한 대형 원료인 필렛은 구정 전에 비해 최대 30% 떨어졌다고 상사 관계자들은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18일자

포클랜드,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 평균 이상 보고

로리고 첫 시즌 어획량 총 3만톤

6월 4일에 개최된 수산위원회 회의에서 Andrea Clausen 포클랜드 수산청장은 2020년 첫 4개월 동안 일렉스 오징어 어획량이 총 6만 2,000톤으로 지난 4년 평균 보다 많이 잡혔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공해상 환경이 일렉스 어획에 별로 좋지 않았지만 아르헨티나 EEZ에서도 많이 잡혔다고 전했다.

Clausen 청장은 로리고 첫 시즌 어획량이 총 3만톤이라고 알렸다. 동 수치는 최근 2년에 비해 적지만 10년 평균과 비슷하다.

해양 포유류 옵서버들은 전 선박에 배치되었다. 민대구는 2019년에 비해 1달 정도 늦게 포클랜드 수역으로 이동했다.

* 기사 출처: MercoPress, 2020년 6월 8일자



日 살오징어 3월 어획, 2.6배인 1,200톤(JF全漁連 집계) 하치노헤 양륙 3월로 미뤄지고, 규슈 낚시 어획 증가

일본 JF全漁連의 집계에 따르면 3월 일본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전년의 2.6배인 1,154톤이었다. 예년 2월에 있는 선동물의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에서의 양륙이 3월로 미뤄졌고, 규슈 낚시어업 어획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 대항어가 계속된 최근 중에서는 높은 수준이었다.

3월의 냉동물 생산은 전년(8톤)의 59배인 474톤이었다. 이 중 412톤은 하치노헤산이었다. 하치노헤의 냉동선 조업은 2월말까지다. 다만 올해는 어장이 멀었기 때문에 3월 초에 돌아왔다고 전어련 관계자는 밝혔다.

2월의 하치노헤에서의 양륙은 전년 동월 대비 56% 감소한 291톤이었지만 그 감소분을 3월에 되찾은 모습이다. 3월 신선물 어획량도 59% 증가한 680톤. 특히 규슈 지역은 61% 증가한 412톤이었다.

3월은 기본적으로 오징어 잡이의 단경기(춘궁기)이며, 최근 수년간은 흥어도 계속되고 있다. 다만 최근 수년간의 어획 수준과 비교하면 올해 3월에는 규슈의 낚시 어획물이 많이 잡혀 후쿠오카 등에서 위판되었다고 전어련 측은 밝혔다.

최근에 비해서는 어획량이 많았던 3월이지만 고가 경향은 변하지 않았다. 3월 평균 kg당 가격은 신선물이 1% 하락한 594 엔, 냉동물은 31% 상승한 1,031 엔을 기록했다.

오징어의 어획량은 1987~2015년에는 연간 10만톤을 초과했고, 90년대에는 30만톤 이상도 2번 있었다. 다만 2016년 6만 4,000톤 이후 계속 줄어 들고 있으며, 2017년 5만 4,000톤, 2018년 4만 2,000톤, 2019년 3만 3,000톤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28일자

일본 살오징어 4월 어획 60% 증가한 485톤 규슈 신선물 3.4배 견인, JF全漁連 집계

일본 JF全漁連의 집계에 따르면 4월 일본 국내 오징어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57% 증가한 485톤이었다. 규슈의 신선물 증가가 주요 요인이었다. 대항어가 이어진 최근 수년간으로는 주 어기를 벗어난 4월이라는 조건 하에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신선물 생산은 63% 증가한 484톤이었다. 가장 큰 요인은 규슈 지역의 성장으로 3.4배인 255톤을 기록했다. 규슈의 어획량은 3월에도 61% 증가를 기록했다. 주로 어기를 종료한 냉동물은 1

톤(지난해 11톤)이었다.

4월의 평균 kg 당 가격은 신선물이 9% 하락한 639 엔, 냉동물은 40% 상승한 1,128 엔을 기록했다.

오징어 어획량은 1987~2015년 연간 10만톤을 넘어 90년대에는 30만톤 이상도 2번 있었다. 단, 2016년 6만4,000톤 이후 계속 줄고 있어 2017년 5만 4,000톤, 2018년 4만 2,000톤, 2019년은 3만 3,000톤에 그쳤다.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20년 6월 8일자



일본 선동 빨강오징어, 하절기 조업에 32척 조업 시작 동해 살오징어 부진으로 2척 증가

북서 태평양의 일본 선동 빨강오징어 하절기 조업이 이달 초부터 시작되었다.

일본 아오모리현 하치노헤 선적을 비롯한 중형 오징어 채낚기 어선단이 3일부터 순차적으로 어장을 향해 출항했다. 일부 어선은 이미 조업을 시작하고 있다. 기간은 1항차가 5~7월이다.

올해도 어업에 따라서는 작년에 이어 8~9월 2항차 조업을 실시할 전망이다.

동해 살오징어의 기록적인 흥어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몇 년 묶인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빨강오징어 하절기 조업에 거는 기대가 크다. 지난해 여름 어획량은 전년보다 80% 증가한 7,138톤이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2척이 증가한 32척의 중형 선박이 조업에 착수한다. 조사선인 대형 오징어채낚

기 어선 開洋丸도 어획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치노헤 선적 외에 홋카이도와 이시카와현 소속 선박도 새롭게 합류했다. 빨강오징어 조업 기간 동안 동해 살오징어 어군이 넓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빨강오징어 조업으로 전환했다.

선동 빨강오징어 하절기 조업은 예년의 경우 하치노헤 선적만 5월부터 8월까지 1항차 조업을 하여 위판한 후 모든 선박이 동해 살오징어 조업으로 전환했다. 하치노헤 이외의 선박은 태평양에 가지 않고 6월부터 동해에서 조업하는 것이 통례였다.

그러나 동해 살오징어의 기록적인 흥어에다 2항차가 가능할 정도로 빨강오징어 어군이 많아졌고, 어자원의 신규 가입량이 2년 동안 증가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29일자

신선 살오징어 가나자와 어획 급성장

1~5일 전국 위판량 전년比 60% 급증 710.5톤

일본의 신선 오징어 어획량이 향상되고 있다.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에 따르면 6월 1~5일 전국 주요 어항의 위판량은 전년 동기 대비 58% 증가한 710.5톤이었다. 산인에서 노토 반도 북쪽 사도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고 있다.

주요 어항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의 어획량은 5월 하순부터 늘어나 자원이 감소한 최근 수년간으로는 집계된 어획량이 있었던 전년 수준 속도로 어획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6월 1일에는 도난의 어업이 해금되었다. 하코다테에서 소형 중심으로 위판이 되었다.

가나자와의 5월 누계 어획량은 10.6% 감소한

842톤. 출발은 부진했지만 6월 들어 전년을 웃도는 페이스로 어획이 진행되어 1~4일 76% 증가한 609톤을 기록했다. 어체 크기는 1마리 160~200g 정도가 절반을 차지한다. 나머지는 100g 미만의 날개가 차지했고, 20마리 들이는 거의 없었다.

동해의 살오징어는 앞으로 성장하면서 북상해 나간다. 최근 수년 간에는 홋카이도 이북으로의 북상이 빠른 경향이 있었지만 올해 노토 반도 앞 바다의 수온은 평년보다 0.5도 높지만 전년보다 2도 낮다. 이 센터는 노토 반도 앞바다에서 어획이 당분간 계속 되고, 천천히 북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20년 6월 8일자



미국, 코로나19로 명태, 대구 자원조사 취소 전례 없는 조치로 TAC 결정에 영향

미해양대기청(NOAA)은 5월 22일에 5개 분야의 주요 알래스카 수산 자원조사를 취소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발표했다. 자원조사는 알래스카 명태, 태평양 대구 등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주요 어종의 관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NOAA는 여전히 진행 중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면서 알류산 열도 저층 트롤, 동부 베링해 저층 트롤, 북부 베링해 저층 트롤, 명태 음향 조사, 가을 생태계(Fall Ecosystem) 조사를 취소한다고 알렸다. 매년 수행해온 알래스카 연승 조사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원 조사는 세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어업 지역 중 일부인 베링해, 알류산 열도, 알래스카만에서 알래스카 명태, 태평양 대구, 알래스카 넙치류의 연간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 한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ABC는 이러한 종의 총허용어획량(TAC)을 어떻게 할당할지에 대한 지침이 된다.

연간 트롤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TAC를 설정하는 연구원들과 북태평양어업관리협의회(NPFMC)는 지속가능한 어획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데이터

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알래스카 명태 TAC가 배링해의 2백만톤에 달하는 어획 쿼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가장 중요한 게 틀림없지만 자원 조사의 부족은 태평양 대구 부문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 동안 태평양 대구 자원은 어려운 상황으로 올해 알래스카만 태평양 대구 어업은 중단되었다. 연구자들과 협의회는 2019년 트롤 데이터를 기반으로 2021년 어획한도량을 결정해야 한다.

태평양 대구 관련 주요 수산 기업들은 올해 데이터가 내년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거나 잠재적인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NOAA는 향후 6월초에 화상으로 열리는 NPFMC 과학통계위원회 회의에서 자원 조사 취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NOAA는 자원 조사 없이도 미국 관리 시스템과 광범위하게 저장된 데이터 등으로 보존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기사 출처: IntraFish, 2020년 5월 23일자

미국 스케코(명란) 입찰, 고가 825엔

A시즌 제2S 트라이던트 해상STD, kg 당 603~825 엔

러미국 트라이던트 시푸드는 5월 15~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시애틀에서 개최가 보류된 A시즌 2단계(S) 알래스카산 신물 원란 스케코(명란) 입찰회를 웹 검품 방식으로 실시했다.

상장 수량은 해상이 18로트 431톤, 육상 공장이 23로트 870톤(일부 생산 중 로트 포함)이었다. 제2S 해상스탠다드(STD) 가격은 kg 당 603~825 엔이었다. 작년 4월 시애틀 입찰 제2S 가격(655~882 엔)을 약간 밑도는 정도였지만 이번

시즌 제1S 해상STD(714~1065 엔)에는 미치지 못했다. 해상STD 최고치를 기록한 825 엔은 코디악-E의 1차 항해 분. 기타는 시애틀 E의 5차 항해 분이 788 엔과 700 엔 대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5로트는 600 엔 대에 그쳤다.

육상 공장 STD 가격은 kg 당 429/632 엔. 시즌 제1S 육상STD(532/633 엔)에 비해 하한가가 20% 낮아졌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20일자



일본, 공치 흥어 계속으로 소비자 이탈 우려 연어·송어 대체 공해 어획물 유통 품질 어려움

일본의 2019년 공치 어획량은 전년 대비 66% 감소한 4만 517톤(전국 공치붕수망어협 집계)이다. 5만톤 이하가 된 것은 공치 어업의 초창기와 전신을 제외하면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인 흥어였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공해상 중심의 어장 형성, 薄漁(부족한 어자원), 어체 소형화에 직면했다.

신선은 4kg 들이(27~32마리)가 중심이었다. 소형화와 어획량 감소로 위판가격 강세가 계속되어 양관점에서의 판매는 저조했다고 어시장 관계자는 밝혔다. 전년도산 해동 물로 대응한 도매도 많았고, 국산(일본산) 품질 후에는 대만산을 판매한 경우도 눈에 띄었다고 한다.

러시아 수역 연어·송어 유망 조업 금지 대체 어업으로 지난해부터 공해 공치 조업은 본 조업으로 전환해 5월 하순부터 일본 국내에서 유통되었다. 도매상인들은 『신선은 물건이 좋지 않아 그만됐다.

냉동물을 판매했다』등의 목소리를 냈다.

간 공치는 일부 지역에서 역사가 깊고, 『지난해 산은 지질이 낮고 품질이 좋지 않아 7.5kg(55~60마리)의 중소형이 중심이었다. 전년도 산과 함께 팔았다』고 시장 관계자들은 말했다.

가공용 냉동 원료를 취급하는 상사는 『국산(일본산)과 함께 대만산도 다뤘다. 가격 급등으로 가공업체는 매입을 꺼렸지만 재고는 적은 상태에서 새 시즌을 맞는다』고 말했다.

자원 회복과 풍어를 바라는 목소리가 많지만 더 이상 흥어가 계속되면 『소비자는 다른 재료를 선택할 것이다』는 도매업자들도 있다.

관련 상인들 사이에서는 『가을 주요 상품인 공치 이탈이 걱정』이라고 하는 등 『상재를 잃지 않을까』하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2일자

공치 어획량, 13만 6,000톤 권고

실제 어획은 제한적

일본 북양개발협회(홋카이도기선연 내)에 따르면 러시아 과학연구기관(『러시아 해양어업연구소 우니로태평양지부 톨로』)은 이번 어기 러시아 공치 어획 권고량(예상)을 13만 6,000톤으로 설정했다.

북방영토를 포함 남쿠릴 해역이 대상이다.

다만 러시아 어업성은 최근 수년 간 이 해역에서 자원이 증가한 정어리, 고등어에 보다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자원이 감소 추세에 있는 공치에

대한 관심은 희미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조업 척수는 불과 4척, 시즌 생산량은 2,400톤에 머물렀고, 10만톤 이상 어획 권고량의 실제적 의미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예년 러시아 어업자가 쿠릴 열도 해역에서 공치 조업에 나서는 시기는 7-8월이다. 열도 중부 또는 북부 해역에서 남서부 해역으로 어군을 쫓으면서 이동하고 대개 10월경까지 조업을 한다.

※ 기사 출처: 일간수산경제신문: 2020년 6월 8일자



일본 공해 공치 조업 시기 불투명

양상판매 대리 협상 결렬, 조업 보류

일본 공치 조업이 본격화되는 시기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해는 5월 중순에 대형 봉수망 어선이 공해에서 공치 조업을 시작했지만 올해는 각 어선들이 조업을 보류하고 있다.

공해 어획물의 주요 판매 창구인 러시아 양상판매대가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규정 상 일본 국내 어항으로의 위판은 가능하지만 선사 측에서 보면 어장이 일본에서 먼 해역이면 많은 유류비와 시간을 들여야 해 출어하지 못하고, 어장이 일본에 가까운 타이밍에서 조업하려고 해도 공해 조업선이 없는 탓에 어장 정보도 들어오지 않게 되어 있다.

일본 전국 공치봉수망어업 협동조합에 따르면 『외국 어선의 조업 정보를 보고 일본 근처에 형성된 어장이 있다고 하면 출어하는 선박도 나올지도 모른다』고 한다.

조합측은 『다만 정부의 어·해황 분석이 7월말~8월초에 나올 때까지 정보가 적은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조기 출어를 목표로 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공치가 일본 근처까지 남하해 오는 8월 이후까지 조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2019년에는 18척의 공치봉수망 어선이 5~7월에 공해에서 조업을 했다. 이 계절 공해 어장은 2016~2018년에 일본에서 편도 2~3일 해역이었던 것이 2019년은 편도 4~5일의 해역으로 멀어졌다. 그 결과 유류 및 시간이 추가 소요되고, 자원 자체도 적었기 때문에 어획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적은

5,003톤에 그쳤다. 그 중 4,497톤은 러시아로의 양상 판매로 팔렸지만 그 평균 단가는 kg 60 엔으로 일본 국내에서의 공해 어획물 판매 가격보다 63% 저렴했다. 어가 하락에 따른 채산성을 우려한 전국 공치봉수망어업 협동조합 관계자들은 러시아 측에 어가 인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이 결렬되어 올해는 양상판매 자체가 사라졌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25일자





일본 주요 68개 어항 위판량, 1~4월 12% 감소한 56만톤 신선 가다랑어 70%, 고등어류 30% 감소

일본 어업정보 서비스센터 「생선 광장」에 따르면 전국 주요 68개 어항의 1~4월 위판량은 55만 8,3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감소했다. 2015년 이후로는 최소한 지난 5년 평균의 90%에 그쳤다. 신선은 정어리, 방어, 날개다랑어, 명태 등이 증가한 반면, 가다랑어, 고등어류, 전갱이 등이 크게 감소했다.

정어리는 조반 근해, 산인 근해 등 전국적으로 집계해 전년 동기 대비 2.2배인 19만 2,000 톤이었다. 지난 5년 평균을 36% 웃돌았다. 평균 가격은 kg 당 45 엔으로 전년 수준.

부리는 16% 증가한 1만 8,000톤이었다. 3~4월의 동중국해 남부와 고토 근해, 4월 이후는 쓰시마 근해와 산인 근해에서 선망으로 어획되었다. 평균 단가는 21% 하락한 248 엔이었다.

날개다랑어는 가다랑어 일본조에 의한 조업이 4월부터 호조세를 보여 28% 증가한 8,600 톤을 기록했다. 지난 5년 평균을 10% 웃돌았다. 평균 단가는 12% 하락한 427 엔. 명태는 5% 증가한 2만 6,000 톤이었고, 평균 단가는 62 엔으로 28% 하락했다.

한편, 신선 가다랑어는 전년 동기의 30%인 2,100 톤에 그쳤다. 전반적으로 어군이 얽고 북상기 오가사와라 제도 수역의 어장도 형성되지 않고, 예년보다 빨리 이즈 수역에서 날개다랑어 잡이가 본격화 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평균 단가는 32% 상승한 580 엔을 기록했다.

고등어류는 동지나해에서 동해에 걸쳐 흥어였기 때문에 34% 감소한 13만 3,000톤으로 2015년 이후 최저치였다. 평균 단가는 전년 수준인 103 엔이었다.

전갱이도 2015년 이후 가장 적었고 14% 감소한 2만 2,000톤에 그쳤다. 이 때문에 평균 단가는 12% 상승한 223 엔으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선 오징어는 흥어였던 전년 동기 대비 4% 상회한 1,800톤이었지만 지난 5년 평균보다 40% 감소했다. 평균 단가는 3% 상승한 609 엔이었다. 냉동은 8% 증가한 1,000톤이지만 지난 5년 평균을 60% 밑도는 저조한 어획 양상을 보였다. 평균 단가는 46% 상승한 1,030 엔으로 상승했다.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20년 6월 5일자

2020년 4월 가계 어육 연제품 지출 6% 증가한 681엔 어묵 10% 신장, 일본 총무성 가계 조사 결과

일본 총무성의 가계 조사에 따르면 4월 어육 연제품의 가구당 지출은 전년 동월 대비 6% 증가한 681 엔이었다. 2월부터 3개월 연속 전년을 넘어섰다.

어묵은 2% 증가한 210 엔, 튀김 어묵이 1% 증

가한 170 엔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치쿠와(구명풍린 대롱모양 어묵)가 12% 증가한 154 엔, 그외 어육 연제품이 11% 증가한 98 엔으로 늘어났다. 튀김 어묵과 어묵은 3개월 계속 전년을 넘어섰다.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20년 6월 8일자



일본 4월 냉동 어묵 생산 21% 증가한 951톤

명태, 청어 어획 순조로워 홋카이도산 수리미 생산 증가

일본 전국어묵협회(홋카이도 아바시리시)가 집계, 회원 보고에 의한 4월 도내 냉동 어묵 생산량(대상 4개사 5개 공장)은 원어 어획량을 반영해 임연수어가 줄어들었지만 명태, 청어가 순조로웠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 21% 증가한 951톤으로 4개월 연속 플러스이었다.

이 중 명태는 12% 증가한 771톤으로 5개월 연속 생산이 증가했다.

제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원어 어획량은 오호츠크(왓카나이-아바시리) 오타루 지역에서 풍어이었던 때문에 12% 증가한 1만 450톤으로 증가했다.

임연수어는 78% 감소한 8톤으로 3개월 연속 생산이 줄었다. 원어 어획량은 주력인 오타루 지역에서 56% 감소한 910톤, 도내 전체로는 36% 감소한

2,000톤에 그쳤다고 제조업계 관계자는 밝혔다. 기타는 2.7배인 172톤이었다. 이 가운데 165톤은 청어였다. 오호츠크 몬베츠 이북 앞바다 저인망 어선에서 청어 잡이가 집계되었다고 전국 어묵 협회는 밝혔다. 1~4월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3,759톤. 내역은 명태가 34% 증가한 3,373톤, 임연수어가 65% 감소한 29톤, 청어, 장갱이, 빨간대구 등 기타가 35% 증가한 357톤이었다.

4월의 홋카이도산 수리미 출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6% 증가한 759톤, 1월부터의 누계는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2,862톤이었다. 4월말 재고량은 2.9배인 3,405톤, 이 중 명태가 3.6배인 2,983톤, 임연수어가 9% 증가한 128톤이었다.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20년 6월 8일자

어식 당뇨병 망막증 예방 가능성

어류 추출물 치료약 개발 기대, 게이오대학, 일본대학 등 연구 발표

게이오기쥬쿠대 의학부의 연구 그룹은 6월 1일 생선을 적극적으로 먹는 것이 당뇨병의 합병증인 당뇨병 성 망막증 진행을 예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갯방어 등의 어류에서 추출한 수용성 추출물이 당뇨 망막증의 특징인 병적 새 혈관의 형성을 유의미하게 약 65%까지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새로운 예방법 외에 생선 추출물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게이오대학 의학과와 시즈오카 현 수산해양기술연구소, 일본 의대 학부 연구 그룹이 이같이 밝혔다. 당뇨병 망막증은 일본 실명 원인의 상위를 차지하며 환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기존의 치료는 합병증이나 고액의 의료비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연구팀은 망막 조직에서 증가해 병세 악화로 이어질 저산소 유도 인자(HIF)에 주목했다. HIF를 억제하는 작용을 가진 물질로서 갈고등어와 갯방어 등 6종류의 물고기 추출물이 유효하다고 확인했다. 연구 성과는 4월 10일 국제과학잡지 「뉴트리엔츠」 온라인 판에 게재되었다. 연구팀은 “기존의 치료를 계속하는 환자에게 안전하고 도입 가능한 새 치료법과 예방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20년 6월 8일자



일본 대학 및 수산관련 기관, 수산업에 대한 코로나 영향 조사

과학자들은 설문 통해 현장의 목소리 전달 계획

일본 종합지구환경학연구소(지구연)과 수산연구교육기구 등의 과학자들은 현재 전국 각지의 수산 관계(어업, 양식, 가공 유통, 음식 등) 업체에 대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받게 된 영향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스마트 폰이나 PC로 응답을 받고 있으며 소요 시간은 10분 정도로 스마트 폰과 컴퓨터(PC)등으로 답변할 수 있다.

연구소는 향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책 등을 분명히 하고 결과를 널리 알리고 싶다고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답변 마감일은 6월말 예정이다.

연구진 팀은 현재 보도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의

영향에 대해 『많은 대규모 사업체 및 계통 단체에 대한 현장 상황이나 개인의 생각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코로나 대응하고 일본의 수산업의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실태 규명을 서두르고 있다.

연구 결과는 속보를 리포트로 제출하는 외에 다른 국제 학술지에 투고할 예정이다. 연구 팀에는 알비아이, 수산연구·교육기구, 지구연, 도쿄대, 도쿄해양대, 홋카이도대 등의 연구자들이 참가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20년 6월 8일자

일본 2020년 4월 가계 해산물 지출액 7% 증가

생선은 염장, 건조 생선 통해 호조, 일본 총무성 가계조사 결과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4월의 가계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해산물 지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한 6,136 엔이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내식 수요가 높아져 3개월 연속으로 전년을 초과했다.

2월 이후 염건 어패류와 어육 연제품 등의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신선 해산물은 7% 증가했다. 연어와 방어, 조개 등 지출액, 수량 모두 전년을 상회하는 품목이 많았다. 선어 지출액은 6% 증가했다. 단가가 하락한 정어리와 연어, 참치 등이 수량을 늘려 전년보다 증가되었다. 15% 지출이 증가한 부리의 수량은 36% 증가했다.

한편 전갱이와 가다랑어는 전년 수준이었다. 모듬 회는 2개월 연속 전년을 밑돌았다. 조개류는 13% 증가했다. 바지락이 14% 증가, 굴 53%

증가, 가리비가 13% 증가로 신장된 가운데 조개는 3% 감소했다.

염건 어류 지출은 9% 증가했다. 말린 전갱이는 15% 증가로 호조를 보인 외에 염장 연어와 건멸치는 5% 증가, 명란이 2% 증가했다. 어육 연제품은 6% 증가했다. 생선 통조림은 21% 증가했다.

신선 육류는 3개월 연속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모두 수량, 금액 모두 신장되었다. 특히 닭고기의 성장이 두드러져 수량이 32% 증가, 지출은 24% 증가했다. 식료품 전체 지출액은 4.6% 감소한 7만 3,919 엔으로 감소 경향이 이어졌다. 외식은 66% 감소로 크게 침체되었고, 이 가운데 초밥은 59% 감소했다. 집계 세대수는 7,534 세대였다.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20년 6월 8일자



일본 2019년 어업·양식업 생산 최소 416만톤

농림수산성 발표, 고등어, 콩치 어획 감소 등 생산 부진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부는 5월 28일 2019년 어업·양식업 생산 통계를 발표했다. 일본 어업·양식업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5.8% 감소한 416만 2,800톤으로 1956년 조사를 개시한 이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해면어업에서 고등어류, 콩치의 어획량이 줄어든 데다 해수면 양식업도 가리비와 김류의 생산량이 부진했다. 해면어업은 4.8% 감소한 319만 7,000톤이었다. 콩치가 64% 감소한 4만 5,800톤, 연어류가 34% 감소한 5만 6,300톤, 오징어가 12% 감소한 4만 2,300톤으로 모두 피크 때에 비해 약 80~90% 감소, 사상 최저였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 또한, 고등어 류가 17.9% 감소한 44만 5100톤, 가다랑어가 5.9% 감소한 23만 3,000톤이었다.

한편 2015년부터 자원 회복이 이어진 정어리가 2.5% 증가한 53만 5,300톤이 되어, 고등어 류를 제치고 가장 어획량이 많은 어종이 되었다. 이외에 가리비는 11.4% 증가한 33만 9,400톤, 명태는 20.6% 증가한 15만 3,800톤이었다.

해면 양식업의 수확량은 9.2% 감소한 91만 2,400톤. 이 중 어류는 0.9% 감소한 24만 7,300톤으로,

방어류가 1.9% 감소한 13만 5,600톤(부리가 10만 3,100톤으로 2% 증가, 잿방어가 2만 8,700톤으로 15% 감소), 참돔이 2.1% 증가한 6만 2,000톤이었다.

한편, 조개류는 13% 감소한 30만 5,500톤. 굴류가 8.3% 감소한 16만 2,100톤, 가리비가 17.8% 감소한 14만 3,000톤. 해조류는 11.5% 감소한 34만 5,500톤. 김류가 11.5% 감소, 미역류가 12.2% 감소로 모두 생산이 줄어들었다.

내수면 어업은 18.4% 감소한 2만 1,987톤. 조개가 0.1% 감소로 전년 수준이었지만 연어·송어류가 12.9% 감소로 떨어졌다. 내수면 양식은 5% 증가한 3만 1,330톤. 작년에 부진했던 장어 지입(池入) 수가 증가하여 13% 늘어난 1만 7,073톤으로 회복되었다.

송어류는 0.1% 감소, 은어는 5.6% 감소했다.

이날 기자 회견을 한 일본 농수산성 생산 유통 소비통계과 담당자는 『해양 환경의 변화에 고등어나 콩치 등의 어장이 멀리 떨어진 것이 어획량의 감소로 이어졌다. 해면 양식도 가리비와 김 등 환경 변화에 약한 어종이 타격을 받았다』 고 설명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1일자

일본 무선 공간 절약형 디자인의 중소형 선박용 레이더 출시

선박용 레이더 JMA-3400 시리즈

日本無線(도쿄도 나카노구)은 6월 1일 중소형 선박을 위한 레이더 '선박용 레이더 MA-3400 시리즈'를 출시했다. 태양의 반사를 억제한 12.1인치 LCD 디스플레이를 채용하여 일본 전국의 항해용 전자해도 참고도(뉴팩)를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소형 선박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깊이 97.1 밀리의 공간 절약형 디자인을 완성했다.

레이더 영상과 항적이 배의 선회에 따라 회전하는 실시간 헤드 업 기능을 탑재하여 다른 선박의 움직임이나 고정된 물체의 위치를 정확하게

읽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다른 선박의 동향을 벡터와 수치로 파악할 수 있는 목표 추적 기능과 선박명과 선박의 위치, 선박 속도 등의 정보를 표시하는 자동선박식별장치(AIS) 표시 기능을 탑재, 안전한 항해를 지원한다. 소형 경량 레이더 유형에서 오픈 레이 타입까지 폭넓게 준비되어 있다.

▼ 일본 무선(주) 마린 시스템 영업부 국내 영업 그룹 = (전) 03 · 5534 · 1220

※ 기사 출처: 일간미나토신문: 2020년 6월 8일자



스미토모, 미국 배양 어육 제조 스타트업 회사에 출자 미 BlueNalu 사 공장 건설 등 추진

일본 스미토모 상사(도쿄도 치요다구)는 5월 29일 미국의 배양 어육 제조 스타트업회사인 BlueNalu사(본사: 미국 캘리포니아 주, 루 쿠퍼 하우스 CEO)에 출자했다고 발표했다.

이 회사는 물고기의 세포를 배양해 어육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공장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 인구와 소득 증대에 따라 생선을 중심으로 한 수산 자원의 소비량은 2050년에는 현재의 약 2배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BlueNalu는 물고기의 생체에서 꺼낸 세포 배양에 의한 어육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미토모 상사가 참가한 출자 라운드에 의해,

Blue Nalu는 샌디에이고에서의 파일럿 공장 건설, 인원 증강, 글로벌 판매 채널 정비 등 판매 개시를 위한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스미토모 그룹은 식품 분야에서 청과·육류 등 신선 유통 사업, 곡물 유지, 설탕 등 기초 식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산업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 하에서 사내 각 조직의 산업 지식에 신기술을 접목시켜 기존 사업의 고도화, 신규 사업 창출, 비즈니스 모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1일자 및 BlueNalu 보도자료

일본 4월 해산물 수입, 20% 감소한 1,300억 엔 중·러 등 수량 금액 모두 2자리 감소율

일본 재무성이 5월 21일 발표한 무역 통계 속보에 따르면 4월 일본의 해산물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10.3% 감소한 17만 9,781톤, 금액은 18.8% 감소한 1,298억 4,400만 엔을 기록했다. 중국과 러시아, 유럽 연합(EU)에서 수량, 금액 모두 2자리 수의 감소율을 보였다.

아시아는 10.8% 감소한 8만 9,856톤, 17.4% 감소한 629억 7,000만 엔. 이 가운데 중국은 13.6% 감소한 3만 6,289톤, 21.9% 감소한 236억 7,000만 엔이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에서는 10.4% 감소한 3만 3,761톤, 9.2% 감소한 272억 1500만 엔이었다. 한국은 0.9% 증가한 6,339톤, 20% 감소한 45억 7,600만 엔이었다.

미국은 1% 증가한 2만 7,089톤, 10.6% 감소한 129억 4000만 엔이었다. 러시아는 12.2% 감소한 9,334톤, 26.2% 감소한 68억 2,700만 엔, EU로부터는 36.7% 감소한 6,532톤, 33.1% 감소한 100억 4100만 엔에 그쳤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22일자



일본 고등어 양식에 ICT 활용, 사바나와 도코모가 업무 제휴 ICT 활용한 새 고등어 양식 모델 확립 목적

고등어 요리 전문점 SABAR 등을 운영하는 사바야그룹(오사카부 토요나카시)과 NTT 도코모(도쿄도, 도쿄도 치요다구)는 5월 28일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발표했다.

정보 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새로운 고등어 양식 모델 확립을 목적으로 이날부터 와카야마현 구시모토정 양식 어장에서 실증 실험을 시작했다. 확립된 고등어 양식 모델을 전국적으로 보급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키로 했다.

사바나 그룹은 매일 엑기스를 배합한 사료로 키운 완전 양식 참고등어 「고리에! 우메에 사바(이건! 우메에 고등어)」 생산에 종사하고 있다.

이번 실증 실험에서는 도코모의 ICT 기술을 활용해 먹이량을 최적화하여 생존율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 지방질이 풍부한 상품 가치 높은 고등어 개발을 목표로 하는 외에 클라우드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와 최적 제시 방법을 검증한다. 실증 실험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

사바나 그룹에서 양식 사업을 담당하는 피쉬 바이오 테크가 도코모의 ICT 기술을 활용해 축양시설 내의 수온과 염분, 용존 산소량 등을 자동으로 수집, 고등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을 분석한다.

작업 일지를 쓰는 앱 등으로 사료 공급량과 타이밍, 카메라 등으로 섭이 행동 관찰이나 잔이를 파악하고, 양식 관리 클라우드에서 일원화해 관리한다.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먹이양 최적화로 「돈 되는 양식업」을 목표로 한다.

사바나 그룹은 양식 어장의 제공, 급이량을 최적화하기 위한 연구 및 폐기 식품 등을 이용한 사료 개발을 담당한다. 도코모는 양식을 관리하는 클라우드 환경과 카메라 등의 장비를 제공하는 것 외에 이미지 인식 기술 등 인공 지능(AI) 기술을 활용, 양식에 사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한다.

〈양식 모델의 수평적 전개를 목표〉

확립된 고등어 양식 모델을 수평적으로 보급함으로써 신규 진입을 촉진한다.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는 고등어 양식장에 스타트업 환경을 마련해주고 본격 참가 시에는 설비, ICT 시스템이나 노하우, 인공 종묘를 제공한다. 또한 음식점과 소비자에게 생육의 모습을 영상 전달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완전 양식 고등어라는 인식을 확대시키는 것도 추진한다.

사바나 그리고 도코모는 『ICT를 활용한 양식 모델 확립으로 양식업에 신규 참가를 촉진시켜 일본 수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1일자





일본, 4월 대 중국 식품 수출 4개월만 증가

「집안에 틀어 박혀 있기」 수요 중국에서 높아져

중국용 일본산 농림 수산물·식품의 4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1% 증가한 167억 엔으로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5월 29일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유행에 따라 쌀 등 고품질 식재를 가정에서 소비하는 「집안에 틀어 박혀 있기」 수요가 중국에서 높아졌기 때문이다.

4월 월간 기준으로는 홍콩을 제치고 중국이 최대 수출 상대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기업이 복리 후생의 일환으로 일본의 쌀을 직원에게 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밖에 청량 음료수나 위스키, 아이스

크림도 호조다. 한편 외식용이 많은 해삼 등은 저조했다.

중국을 포함한 4월 전체 수출은 10.4% 감소한 739억 엔. 4월부터 코로나 감염 유행이 본격화된 미국은 22.4% 감소한 86억 엔으로 급감했다. 홍콩은 5.7% 감소한 158억 엔에 그쳤다.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42.9% 감소한 14억 엔, 일본 술이 37.3% 감소한 14억 엔으로 침체가 심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6월 1일자

日 슈퍼마켓 협회, 4월 냉동 생선 등 판매 성장

전국 슈퍼 수산물 판매 전년 동월 대비 7% 증가

일본 중견 슈퍼들이 조직한 일본 슈퍼마켓 협회에 따르면 산하 55개 4,861개 점포의 4월 수산물 기존 판매점 매출은 전년 동월 대비 7.4% 증가했다. 전월에 이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의 유행에 의한 「수고모리(집안에 틀어 박혀 있기)」 수요가 높아 오래 보존하는 냉동 생선이나 절인 생선, 염건품의 움직임이 좋았다.

선어는 참치와 전갱이가 주축했지만 부리와 정어리가 신장되었다. 생선을 소금에 절여 말린 염건품은 염장 연어와 어란의 매출이 증가했다. 제철 상재로는 보일(꽃이거나 데친) 반디 오징어나

삼치가 호조를 보인 반면 가다랑어는 부진했다.

반찬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유행에 의한 외출 자제 영향을 받아 5% 감소했다.

꽃놀이·관광 수요가 감소한 결과로 도시락이나 초밥 등 쌀밥류의 매출이 떨어졌다.

특히 『감염방지를 위해 날개 판매나 달아 파는 것을 중지해 생선 튀김이나 덴푸라가 부진했던 데다 작업량 증가와 같은 생산성 악화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다』 고 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25일자



러시아, 남극 크릴 어업 확장 검토

러시아 수산청 추진, 업계는 신중

러시아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 수산물 생산량 확대를 위한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남극 크릴 어업 확장에 주목하고 있다.

러시아의 크릴 어획량 증가는 러시아 Ilya Shestakov 수산청장이 수산물 수출로 인한 국가 수입을 두 배로 늘리기 위해 마련한 전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수산청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러시아 언론과 업계 행사에서 동 구상을 홍보하기 시작했다.

Savchuk 청장은 이 아이디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크릴 조업을 위한 새로운 전용 선박 건조를 비롯해 최첨단 가공 시설이 건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을 450억 루블(6억 4,000만 달러) 정도로 추정했다. 다소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기업들이 크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동 계획의 이행을 위한 첫 번째 실질적인 걸음은 AtlantNIRO사가 5개월간의 크릴 조업을 완료한 2020년 5월초에 이루어졌다. 수십 명의 전문가가 남극의 크릴 서식지, 자원량, 크기 등을 조사하여 어업 잠재력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Savchuk 청장의 지시로 이 보고서에서 과학자들은 러시아 선박이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남극 크릴 조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Savchuk 청장은 『수익성 있는 어업 모델의 수립이 필요하며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들은 우리가 남극 대서양 수역에서의 어업을 준비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고 말했다.

AtlantNIRO사의 선임 연구원이자 원정대의 대장인 Vladimir Shnar는 원정대가 조사한 수역의 크릴 자원량은 6,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어 러시아 과학자들이 17년 전에 조사한 수치보다 훨씬 높다고 한다.

남극 크릴 어업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의 어획량 제한은 561만톤이지만 크릴은 남극 생태계 핵심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현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는 자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제한적인 62만톤으로 어획량을 제한하고 있다. 펭귄, 고래, 바다표범은 모두 생존을 위해 주요먹이로 크릴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 관리들은 CCAMLR의 낮은 어획 제한량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업을 확장할 여지가 있다고 말한다.

러시아 고위 관리 중 일부는 열렬히 크릴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만 러시아 어업 회사들은 접근에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다. 2018년에 러시아 수산청이 크릴 어업 전용 선박 2척을 건조할 자금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재무부에서 거절당했다. 러시아 최고 어업 기업들의 대표들은 크릴의 상업적 매력에 의문을 표시했다.

Savchuk 청장은 Kommersant 신문사에 현재 러시아 회사 3개사가 남극 크릴 어업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회사명 공개는 거부했다.

* 기사 출처: SeafoodSource, 2020년 6월 5일자



블록체인, 수산식품 가치 사슬 효율성 개선 가능성

7가지 사례 분석

FAO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회자된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은 어업과 양식업의 가치 사슬에 있어 추적 가능성 환경과 이해관계자의 행동 방식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FAO는 '수산식품 가치 사슬에 블록체인 적용(Blockchain Application in Seafood Value Chain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블록체인에 대해 소개하고 7가지 이니셔티브를 분석하여 기술이 수산식품 가치 사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불변성, 보안성, 탈중앙화, 스마트 계약(블록체인 등 분산 원장 기술에서 거래의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당사자 간에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기술) 등의 고유 특성을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수산식품 가치 사슬에서 효율성과 책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블록체인을 공급망에 적용하면 주요 데이터 요소의 교환이 용이하게 되어 가치 사슬을 통해 이동하는 수산제품을 성공적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이 통합 시스템 역할을 하여 국경을 넘어 어류에 동반되는 모든 관련 법적 문서, 증명서를 보유할 수 있어 공통 기술 레이어(common technology layer)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초기 이니셔티브 중 하나는 인도네시아 Project Provenance Ltd (Provenance)에서 2016년에 실시한 6개월 시범 프로젝트로 동 프로젝트는 황다랑어 로인과 가다랑어 통조림 공급망에 중점을 두었다.

동 프로젝트는 Provenance 앱과 기존 문자(SMS) 메시지를 이용하여 어업인들이 물리적 및 디지털

방식으로 어획물을 등록하고 공급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공급자들은 디지털 데이터와 함께 어획물을 공장으로 보냈다. 마지막 단계로 참치 제품에 NFC 지원 스마트 라벨을 붙여 출처를 알렸다.

FAO 보고서는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계획으로 세계자연기금(WWF)과 호주, ConsenSys사, 피지 기업인 Sea Quest (Fiji) Ltd, TraSeable Solutions사가 함께 처음으로 참치 연승 어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2017년 프로젝트를 꼽았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각 참치에는 처음에 RFID, 나중에 QR 코드를 사용하여 고유 식별자(데이터의 항목을 식별하고 데이터의 성질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자의 집합) 꼬리표가 붙여졌다. 어획과 참치에 관한 주요 데이터가 앱에 기록되었다. 가공 시설의 가공 라인 주요 단계에서 참치가 추적되고 주요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만약 참치가 로인과 같은 다른 제품으로 변형되면 이들 새로운 제품 각각의 블록체인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되고 별도로 추적된다.

Fishcoin 이니셔티브는 이 연구에서 언급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이다. Fishcoin은 안정된 보조 화폐로 뒷받침되는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 생태계'를 내세우고 있으며 공급망을 통해 수산식품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WWF와 호주, BCG Digital Ventures사가 협력하여 2019년 초에 발표된 OpenSC 프로젝트, 2019년 3월에 발표된 Bumble Bee Foods와 SAP Indonesia의 황다랑어 관련 이니셔티브 등이 언급되어 있다.

* 기사 출처: Fintechnews Singapore, 2020년 5월 19일자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 선원 23,500명 모라토리엄 검토 6월에 발효 검토, 6개월 지속 예상

최근 해외 어선에 승선한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선상에서 잇따라 사망하고 학대당했다는 혐의가 제기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어선 근무 금지 조치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원들이 국내에서 취업하기를 바라고 있다.

글로벌 환경 뉴스 전문 매체 Mongabay 뉴스에 따르면 최근 기자회견에서 어선 어업(Capture-based Fisheries) 담당 Zulficar Mochtar 국장은 『수산부 장관은 향후에 적용될 절차를 수정하는 동안 모라토리엄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모라토리엄은 6월에 발효되어 6개월 간 지속될 수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약 2만 3,500명의 인도네시아 시민이 외국선박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모라토리엄이 발효되면 참치 연승, 선망 등 많은 어선들은 선원 부족에 시달릴 것이다.

인도네시아 외무부는 중국어선, 'Lu Qing Yuan Yu 623'호에서 인도네시아 선원이 1월 16일에 사망하고 일주일 이 지난 뒤 소말리아 근해에 수장된 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인도네시아 선원에 대한 학대 혐의가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2월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인도네시아 선원 4명은 중국 다롄오션피싱 소속 참치 연승선 'Long Xing 629', 'Long Xing 802', 'Tian Yu 8'호에서 사망했다. 전해진 바에 따르면 선원들은 의학적 치료를 거부했다고 한다. 환경정의재단(EJF)은 5월초에 해당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당국에 사건 조사를 요청했다.

Mochtar 국장은 이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 정부는 『해외 취업 어업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기 위해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도덕한 취업 알선 업체를 배제할 것이며 노동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게 보장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인은 교통부, 노동부, 인도네시아 해외 취업 노동자 보호국(BP2MI), 지방정부, 개별 중개업체 등 다섯 가지 다른 경로를 통해 해외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

Mochtar 국장은 서로 다른 기관들 간 조율 부족이 해외 취업 노동자 학대에 대한 조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모라토리엄을 마무리 짓기 위한 문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ochtar 국장은 『현재 수산부가 국적선 확대를 추진 중으로 연간 어획량 총 1,250만톤을 달성하기 위해 100톤 이상 선박을 최소한 7,000척으로 확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책은 인도네시아 어업인들이 자국에서 일하도록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는 이러한 조치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표한다. 그린피스 동남아시아 오션 캠페인 담당자인 Arifsyah Nasution은 『모라토리엄 계획은 채용 회사와 그들의 연합체에 대해 엄격한 법 집행이 없다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다』라고 Mongabay 뉴스에 밝혔다.

모라토리엄 관련 소식은 일부 이해 당사자들에게 환영 받았지만 생계를 잃게 될 인도네시아 어업인들에게는 힘들게 다가올 것이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6월 2일자



노르웨이 양식 연어 생산세 도입

2021년 예산 정책, 자치 단체의 재정 건전화 도모

노르웨이 정부는 5월 12일 2021년 국가 예산에 대한 양식 연어와 송어에 대해 kg 당 0.4 노르웨이 크로네 (약 4~5 엔)의 생산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밝혔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이는 2022년 이후 연간 약 5억 노르웨이 크로네(약 55억~60 억엔)의 세금 수입이 예상되고 있으며, 양식이 행해지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에 분배된다고 한다.

노르웨이 양식업은 라이선스제로 되어 있으며, 양식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지자체는 새 라이선스 부여에 의한 수익의 일부를 양식 기금을 통해 얻고 있었다. 양식 규모에 따라 수익이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라이선스가 시장 가치를 크게 밀도는 수준에서 부여되는 경우도 있

었다고 한다.

노르웨이 재무부는 『지자체 간 소득 분배도 불평 등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양식 기금을 통해 얻을 수 있던 자치 단체의 소득 점유율의 일부를 생산 세금 수익으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다. 생산세 도입 외에 새로운 라이선스 부여에 의한 수익 중 25%를 양식 지역 지자체에 배분, 자치 단체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한다.

생산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지자체가 수익을 받게 되는 것은 2022년 이후가 된다. 2020년, 2021년 2년 간 지자체에 할당된 세 수입은 10억 노르웨이 크로네로 보고 있다.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22일자

러시아 극동 수산물 운송에 북극해 항로 이용 계획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관련 계획에 서명

노르웨이의 북구권 국가 뉴스 전문지인 Barents Observer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극해 항로를 이용해 극동에서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수산물의 운송을 허가하는 계획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Barents Observer는 농식품 산업 관련 회의 기록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동 계획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감차카주 Vladimir Solodov 임시 주지사는 해

당 항로로 약 6~7만톤의 극동 연어를 운송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양은 25~30만톤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극해 항로 및 원자력 추진 화물선 Sevmorput 호의 이용은 극동에서 모스크바까지의 운송 기간을 절반까지 단축할 것으로 추정된다.

* 기사 출처: Undercurrent News, 2020년 5월 21일자



남대서양 RFMO 설립에 힘 모아 아르헨티나 및 스페인 기관 협약 체결

스페인의 어업 관련 2개 기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역 수산관리 기구(RFMO)가 없는 수역인 남대서양의 지속가능한 관리 수립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아르헨티나 소재 기관과 기념비적인 협약을 체결했다.

남대서양 어업 자원 보호 기구(Organisation for the Protection of South Atlantic Fishery Resources, OPRAS)는 아르헨티나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FAO 41해구의 지속 가능한 관리를 장려한다. 현재 41해구는 EEZ의 가장자리를 따라 운영하는 아시아 오징어 선박들로 어획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스페인 Vigo를 기반으로 하는 전국 민대구 어업 냉동 선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Hake Fishing Freezer Vessel Owners, ANAMER)와 스페인 전

국 어업인 단체(Spanish national fishermen's organisation, CEPESCA)는 OPRAS와 프레임워크 협업 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에 설립된 OPRAS는 이미 선주 회의소(Chamber of Shipowners) 및 브라질 Itajai와 지역 어업 연합(Fishing Industries of Itajai and Regiao of Brazil, SINDIPI)과 협약을 체결했다. 브라질 역시 41해구에 접해 있다.

41해구는 민대구와 오징어가 풍부하여 22~26척의 스페인 선박들이 2008년부터 37년간 조업해왔다.

단체 간에 체결된 계약은 남서대서양 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성과 연관된 기술위원회의 필요성과 지속 가능한 어업 체재의 시행을 명시하고 있다.

* 기사 출처: FiskerForum, 2020년 6월 8일자

모리타니아 냉동 문어 對日 1,000 달러 가격 인하 6월말까지 모리타니아 산 일률적 하락

모리타니아 수산물무역협회(SMCP)는 최근 5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냉동 문어 對日 가격(톤당 가격, FOB, 중개료 별도)을 발표했다.

이번 가격은 이전(4월 6일~5월 18일)에 비해 단지(항아리), 트롤 모두 일률적으로 톤당 1,000 달러 내렸다. 올 여름 조업 해금이 7월 15일이기 때문에 가격 대상은 동절기 어획한 문어만이다.

일본 업체의 구매 동향에 대해 한 상사 관계자는 『모로코 6, 7번 어획량이 적은 점도 있어서 일본 업체는 매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회사는 『일본으로의 반입이 8월 이후

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도 매입은 그다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엇갈린 견해를 보였다.

각 크기의 톤당 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지(항아리)〉 ∇ 3번 = 8,000 달러 ∇ 4번 = 7,300 달러 ∇ 5번 = 7,000 달러 ∇ 6번 = 7,500 달러 ∇ 7번 = 7,000 달러 ∇ 8번 = 6,500 달러
〈트롤〉 3번 = 7,500 달러 ∇ 4번 = 6,800 달러 ∇ 5번 = 6,500 달러 ∇ 6번 = 7,000 달러 ∇ 7번 = 6,500 달러 ∇ 8번 = 6,000 달러

※ 기사 출처: 일간 미나토신문 2020년 5월 25일자



바 다

김 기 린

바다여

얼마나

갓고 싶기에

가슴이 그리 넓은가

얼마나

하고 싶기에

할 말이 그리 많은가

얼마나

원통하기에

끝없이 그리 울먹이는가

얼마나

살고 싶기에

억만 년을 살고도 그리 젊은가.





원양어선 국제옵서버의 모든 것, 한 곳에서 본다

6월 2일부터 국제옵서버 누리집 'K-옵서버' 운영 시작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제옵서버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담은 누리집인 'K-옵서버(www.fira.or.kr/kobserver/)'가 6월 2일부터 운영된다고 밝혔다.

국제옵서버는 국제수산기구나 개별 국가의 지정을 받아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실태, 어획정보, 국제규범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고, 해양생태계에 관한 과학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국제옵서버 제도는 2001년 'UN공해어업협정' 발효 이후 어족자원 보존·관리를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55명의 국제옵서버가 중서부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남극 해역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고 있다.

최근 불법·비보고·비규제(Illegal·Unregulated·Unreported) 어업 근절과 지속가능한 어업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국제수산기구는 국제옵서버 의무승선율을 확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국제옵서버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청년층의 지원이 늘어나는 등 국제옵서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옵서버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제옵서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국제옵서버 누리집을 마련했다. 이 누리집에서는 국제옵서버 채용정보와 교육자료뿐만 아니라, 관련 국제규정, 제도, 수행 업무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질의답변 게시판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직접 질문을 올리면 답변도 받을 수 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바다의 파수꾼, 국제옵서버 K-옵서버
 지속가능한 어업의 조력자, 국제옵서버가 함께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수산자원공단 TAC관리팀 (☎ 051-718-2482)로 연락주세요.

국제옵서버란?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조업 관리·감독 및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국제기구 또는 국가의 권한을 받은 사람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

국제옵서버의 근로조건
 - 국제옵서버는 선박에 승선하여 사관급 대우 및 독립성 보장
 - 임금은 1일 기준 210USD
 - 정년이 없어 종장년층의 재취업에 용이
 - 국제감각과 해양수산분야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청년층에게 추천

임무 및 활동
 우리나라 또는 외국의 원양어선이나 시험선에 승선하여 어획통계조사, 생물학적 조사, 조업실태 등 조사
 어선별 할당량 소진상황 조사 (쿼터 조업선에 한함)
 어업자원량 평가를 위한 과학적 자료 및 시료수집
 관할수역의 국제수산기구에서 마련한 어업량 자원 보존조치 준수 여부 조사

국제옵서버가 되려면?
 21세 이상의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
 2년제 대학 이상에서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수산에 고등학력을 졸업한 자 수산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어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는 예외

한편, 국제옵서버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옵서버 자격증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과한 후 국제옵서버 교육과 역량평가를 거쳐 취득할 수 있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K-옵서버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국제옵서버에 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옵서버는 국제 감각을 키우고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색 직업인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수부, 외국인 어선원 처우 개선

선원도입 공공성 강화, 인권보호, 근로환경·관리체계 개선 등

해양수산부는 최근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 주요 송출국과의 협력 강화 및 수협·통관·검역 등 통합관리 등을 통해 외국인선원 도입체계의 공공성 강화 ▲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민-관 공동 실태조사 등을 통한 인권보호 ▲ 외국인 선원의 숙소·식수·급식기준 등 마련을 통한 근로환경 개선 ▲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 한국어, 근로고충 교육 등 교육체계 개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겨 있다.

해수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미얀마 등 주요 송출국 정부와 (가칭)선원교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단기적으로 현지 송출업체에 대한 현지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지 정부나 공공기관 주관으로 외국인선원 인력풀을 형성할 방침이다. 수협을 중심으로 국내 송입절차에 대한 공공성도 강화한다. 수협·송입업체 평가와 외국인선원 배정 쿼터를 연계하여 송입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수협이 외국인 어선원 도입을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인권침해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우선 인권단체와 공동 현장조사를 추진하고, 외국인선원 실태점검도 확대(연 1회 → 연 2회)하여 관련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산분야 관계자를 옴부즈만으로 지정해 외국인 어선원의 일상 생활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어선원이 언어소통 문제로 신고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수협과 선원고용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선원 콜센터와 지방청 선원 근로감독관을 연계시켜 애로사항을 처리기로 했다. 또한, 인권침해 행위로 실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선

박에는 외국인선원 배정을 제한하고, 관계자는 해기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하고, 외국인선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준 모범선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아울러, 열악한 원양어선원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1,700억원 규모의 원양어선 안전펀드를 조성한다. 노후어선의 신조대체를 지원하여 적정 거주공간, 적정조명 등을 확보하고, 외국인 선원들이 가족,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도록 선내 Wi-fi 등 무선통신망도 확대한다. 이에 더하여 원양 어선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선내 급식기준도 마련한다.

외국인 선원의 임금 등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원양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임금은 현재 국제운수노동조합(ITF)에서 정한 국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임금을 보다 현실화하기 위해 노-사-정 T/F를 구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근로시간 등 열악한 어선원의 근로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어선원 노동협약(C.188)의 국내 비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④ 외국인 선원 관리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훈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선원관리지침 중 ‘외국인 선원 고용 및 변경신고’ 등 필수절차를 법령에 반영하고, 외국인선원 도입과정에서 부당한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 선원 관리를 위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구인구직 절차 안내, 외국인 선원 인력 및 일자리 DB 구축, 온라인 고충상담 등 선주와 외국인 선원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이다.



수산물 즉석 간편식으로 해외시장 개척 코로나19 대응 즉석 간편식품 개발, 편의점 연계 마케팅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간편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 수산물을 이용한 간편식품을 개발해 해외 시장 개척에 나선다.

대표 양식 수산물인 넙치를 활용한 어묵전병에서부터, 가정에서 전자레인지, 에어프라이어 등으로 간편하게 조리가 가능한 고등어조림, 참게가리장국 등을 한해 총 9종의 신규 제품을 개발,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간편식품 시장 공략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제품은 고품질 고등어조림, 레토르트 참게가리장국, 레토르트 명란 병조림, 저염 오징어 젓갈, 넙치 어묵 전병, 가리비 조미가공품, 해조류·김 부각, 냉동굴 천연 조미 제품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간편식 시장 수요를 반영해 수산물

을 활용한 간편식품 개발 규모를 대폭 늘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6월부터 해외 간편식품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간편식품이 주로 유통되는 해외 현지 편의점과 연계한 마케팅도 추진한다.

중국, 대만, 베트남 등 5개 국가 148개의 편의점에 K·FISH 인증을 받은 우수 한국 수산식품 입점과 시식 마케팅을 추진하고, K·FISH 홍보모델인 배우 윤시윤과 함께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지난해 대만, 베트남에서 K·FISH 홍보 모델을 활용한 편의점 마케팅을 통해 어묵 수출이 크게 늘어났던 사례를 볼 때, 올해 판촉행사도 우리나라 간편 수산식품이 해외 수출시장에 진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기대하고 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 장기승선 선원들에 감사 서한 보내

장기 승선 선원 격려 위해 장관 표창장 10점 수여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불가피하게 장기승선 하게 된 선원들의 노고에 대한 감사 서한을 보냈다.

이번 서한은 전세계 주요 항만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선금지, 입국 통제 등의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장기 승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선원들을 격려하기 위함이다.

문 장관은 서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불가피하게 장기승선하는 선원들의 피로도 누적이 염려된다』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노력해주시는 선원들이 계시기에 국민들께서 안정적인 일상을 보낼 수 있다』고 선원들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선원들이 항상 자부심을 가지시고 근무 해주길 바라며, 안전한 항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고, 『해수부도 근로환경 및 복지여건 개선 등 선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수부는 장기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총 10점)을 수여할 계획이다.

앞서, 해수부는 선원교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항만에서 자유로운 선원교대를 보장하는 한편, 국제해사기구(IMO), 국제노동기구(ILO)에 자유로운 선원교대가 필요하다는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도 이에 호응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해양수산 창업의 기회, 아이디어로 승부하라

2020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개최, 6. 8~7. 17 신청 접수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2020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해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모집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분야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고 예비창업자와 창업 초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창업 콘테스트를 개최했으며, 총 26개의 창업 아이템을 발굴했다. 입상작 중에서는 해양수산부의 후속지원을 받아 창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 저요오드 해조류 가공식품을 개발한 'Yo.od' 팀과 해양에 유출된 기름을 흡수·수거하는 오일펜스를 개발한 '수수달' 팀은 콘테스트를 통한 창업 교육 및 집중 멘토링으로 2019년 창업에 성공했다.

이번 콘테스트는 사업화 부문과 아이디어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사업화 부문에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이 참가할 수 있고, 아이디어 부문에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참신하고 젊은 창업 아이디어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아이디어 부문을 '일반부'와 '학생부'로 구분하고, 구성원이 대학원생 이하일 경우 '학생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접수가 마무리되면 서류심사를 통해 총 22팀의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본선에 진출한 팀은 창업·투자 전문가에게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창업캠프 참여 기회가 주어지고, 최종 평가를 통해 총 11팀의 결선 진출팀을 가려낸다. 최종 결선은 오는 9월 초에 오디션 형태로 진행되며, 유튜브(Youtube)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해수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 컨설팅 지원

7월 6일까지 사업화 및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 공모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해양수산 중소·벤처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팅 지원은 '사업화 컨설팅 프로그램'과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사업화 컨설팅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모델 수립, 국내외 시장조사,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고, '투자유치 컨설팅 프로그램'은 기업진단을 통한 재무전략 설계, 투자유치에 대한 기본 교육,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투자자 매칭까지 지원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6월 5일 공고와 동시에 모집에 들어가 7월 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응모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여부 등을 조사한 후, 7월 중에 심사위원회를 열어 14개사(사업화 컨설팅 9개사, 투자유치 컨

설팅 5개사) 내외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비대면 분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사업 제안기업에게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지원금의 10% 수준인 기업부담금도 전액 면제할 예정으로 더 많은 기업이 응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7월 6일 16시까지 해양수산창업정보시스템 누리집 <https://www.kimst.re.kr/startup>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에 처음으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17개사의 평균 매출액이 117% 늘어나고 고용도 24%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코로나 피해 수산업계 및 친환경선박 전환 지원 추경 편성

해수부,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778억원 규모 편성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으로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수산업계 지원과 한국판 뉴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78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1. 수산분야 피해업계 지원

먼저 코로나 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수산 업계 지원을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을 발행(210억원)해 수산물 소비를 촉진한다. 소비 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은 온라인,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국, 태국, 베트남, 일본 등 주요 수출국가의 비대면 시장 진출도 지원(51억원)한다. 수산물 수출업체가 해외 주요 홈쇼핑과 온라인 마켓에 입점하거나 판촉 프로모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2.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대비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해양수산 분야 비대면·스마트 체계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친환경선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해양공간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해양수산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21억원)하고, 기존에 대면으로 진행되던 선박 도면 승인 작업을 전자도면을 통한 비대면 검사신청·승인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13억원)도 편성했다.

또한, '21년 발주 예정인 노후 관공선 6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조기 발주(31억원)하는 예산도 포함되었다.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안전 SOC 기반 구축

항만 안전 SOC 조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약 400억원 규모의 항만 SOC 추경안도 편성하였다. 이와 함께, 원양어선 안전 확보를 위한 원양어선 안전펀드 예산도 60억원 추가 편성해 노후 원양어선 2척을 추가 대체 건조할 예정이다.

선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추진

해수부, 선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 실습선원 보호 등을 담은 선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5일(금)부터 7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 퇴직금 등 선원 임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실습선원 관리 강화, ▲선내 비치 의료품의 종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20톤 미만 어선과 일반 근로자들은 임금이 체불될 경우 사업주에게 지연이자 부과, 사업주 명단공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임금체불을 예방할 수 있었다. 반면 선원법이 적용되는 상선과 20톤 이상 어선 등 선원의 경우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명단 공표 등의 수단이 없어 임금체불 등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실습선원의 휴식여건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선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휴식시간 준수 등을 지방해양수산청 선원근로감독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반영하였고, 선내 비치 의료품 목록도 해양수산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반영되었다. 이를 통해 실습선원을 비롯한 선원들의 복지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0년 7월 17일까지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원양산업협회 부서별 연락처

입원실	성명	전화번호	비고
회장	윤명길	589-1600	
전무	이동욱	589-1602	경영지원본부장
전무	최경삼	589-1603	해외협력본부장
비서(주임)	조한솔	589-1601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경영지원본부	기획총무부	오재경 이사	총괄
		강성현 차장	총무, 회계
		박설진 과장	경리, 예산
		공길웅 과장	기획자금, 생산통계
	조성환 과장	문서, 운전	
	회원지원부	이성재 부장	총괄
소기동 차장		노사, 선원	
김효상 과장		무역제도, 수출통계	
홍보마케팅지원센터	김현태 이사	총괄	
	김영수 과장	홍보·마케팅지원	

부서	성명	전화번호	담당	
해외협력본부	해외협력 1부	신현애 부장	총괄	
		진호정 차장	선망	
		최봉준 대리	국제협력	
		백상진 사원	연승·오징어	
	해외협력 2부	이형균 부장	총괄	
		조성주 과장	복양, 콩치	
부산지부	-	(051)	총괄	
		253-3388	확인업무(수출,반입등)	
	공인계량소	이영두 팀장	051	차량계량
		이동주 팀장	253-3391	차량계량

해외수산협력센터(세종)	센터장실	권현욱 센터장	044-868-7360	협력센터 총괄	국제협상지원팀	원태훈 전문관	044-868-7831	일반/지역수산물구 일반/지역수산물구 對 일본 업무
	기획운영팀	이희진 팀장	044-868-7834	행정총괄, 명예수산물관 OFIS, 해외투자, 행정	국제협상지원팀	-	-	ODA 통계, 협의회
		이재영 행정관	044-868-7837			김선경 전문관	044-868-7833	
	국제협상지원팀	양재걸 팀장	044-868-7364	국제협상 총괄 일반/지역수산물구	해외진출지원팀	서규혁 행정관	044-868-7836	
이해나 전문관	044-868-7363	윤유정 행정관	044-868-7838					

■ 협회 홈페이지 : www.kosfa.org ■ 팩스번호(서울) : 02-589-1630/1, (부산지부) : 051-253-3392, (해외수산협력센터) : 044-868-7840

명예해양수산물관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사모아	오시영	1684-258-9900 syoh_2@hotmail.com
피지	김종태	679-330-7188 ckpfj@naver.com
페루	이호상	51-1-454-6394 asia@asiamaritima.com
인도네시아	이재원	62-21-8660-6278 imsindo@hanmail.net
가나	이윤희	233-22-300772 skshipafrica@yahoo.com
세네갈	김점봉	221-33-853-0850 senegalkim@gmail.com
뉴질랜드	윤정환	64-3-344-1617 seajho@xtra.co.nz
미얀마	변경대	95-92-6204-1339 kevinbyun61@naver.com
남아공모잠비크	정연국	27-71-285-4131(+82-10-5353-7135) ygjeong21@naver.com

해외협력자문위원 연락처

담당지역	성명	연락처
남아공	조창원	27-21-447-1634/1515 saka0505@naver.com
수리남	박권현	597-42-2185 donghee_sur@yahoo.co.kr

원양산업
제1122호

발행 : 2020년 6월 15일
 등록일자 : 1981년 8월 27일
 등록번호 : 서울라-9183호 / 간별 : 월간

발행처 특수 한국원양산업협회
 법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양재동, 삼호물산B/D A동 6층)

발행인 윤명길
 편집인

다양한 해외수산투자 정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OFIS)에서 확인하세요

www.ofis.or.kr



해외진출 정보!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국가별 수산업 정보 제공

110개국 수산업 국가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국내외 최신정보 제공

국내외 기사 및 자료를 분석하여 최신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내외 원양산업 관련 뉴스
- (원양산업 동향) 매월 생산량, 어가 동향 등 원양산업 현황 정보
- (국제수산물시장 동향) 국제 수산 이슈 및 국제 회의 동향

원양산업 주요국가 최신정보 제공

9개국 명예해양수산물관(연안국 현지 교민)이 주요 수산업 동향, 어가, 유가 등 생생한 정보 제공

요청자료가 있을 시 문의해 주시면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 경험 및 진출기회 공유

진출 업체 전문가 및 학계 전문가 특별기교로 전문가 소개 및 진출기회를 제공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정보 제공

업체 투자 희망국 전문가 초청, 조사, 용자 등 진출을 지원합니다.

- 해외에 수산부분(양식, 가공, 유통) 투자 시 사업자금 융자
- 전문가 초청 교육 수요조사 및 일정
- 투자 희망국 수요조사 및 일정



최신 정보가 메일로 쓱! 쓱! E-Newsletter 받아보세요!
아래 기관메일로 E-Newsletter를 신청하시면
매월 최신 정보를 보내드립니다.